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20)



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28호 2013년 3월 3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선교신흥대국 교육 훈련, 미국교회가 맡는다!”

크리스천포스트, 미국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 리더십의 진지한 반성 소개

초일류 선진국인 미국까지 위협하는 한국의 저력은 반도체도, LCD도, 조선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도 아니다. 바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교회 선교의 성적이다. 미국교회 선교사들의 선교 때문에 복음을 접한 한국교회처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변방에 속한 지역으로 선교의 중심축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교회 주도의 선교 역사가 소위 제 3세계권으로 이동된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교회 내에서도 달라진 변화를 인식하고, 미국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지를 돌아보는 솔직한 반성과 방향 전환을 위해 모색하려는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고든 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폴 보스워(Paul Borthwick) 교수의 최근 저작(Western Christians in Global Mission: What's the Role of the North American Church)을 통해, 미국교회 선교의 역사를 재조명해주고 있다(The Global Mission Shift: Should the North American Church Lead, Follow or Both?).

미국교회는 과거 자신이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교회와 같은 서구 교회에서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로 선교의 중심 이동이 진행된 상황에서, 여전히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인 미국교회는 과연 어떠한 선교적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가 바로 미국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다.

실제로 1910년에는 1천2백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아프리카 대륙이 2010년에만 4억9천5백만 명으로 급성장할 정도로 성장한 교회와 발맞춰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대거 파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 보스워 교수는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복음의 씨앗을 심은 역사를 북미교회가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시 말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를 위한 열정



선교대국으로 비 서구권이 부상하고 있지만 선교 교육이나 훈련은 노후를 갖고 있는 미국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유럽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르치고 있다. 즉 19세기에 가나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녔던 세상적 소유물이나 물건들을 모두 장사지낼 관에 두고 왔다. 왜냐하면 가나에서 자

신들이 죽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가나로 파송된 선교사들 중 60%는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죽었지만 복음의 씨앗을 묻고 죽었다. 바로 가나교회 성장은 이처럼 선교사들이 생명과 맞바꾼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맺은 열매이다.

결국 보스워 교수는 현재 기독교

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미국 교회나 신학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중국 가정교회에서 일고 있는 선교운동을 소개해준다.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과 감시 속에서도 연일 성장하고 있는 가정교회에서는 최소한 10만 명의 선교 후보자들이 불교도나 힌두교 그리고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산 제사물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절경을 만들기 위해 가까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의 각오와 사명을 북미 교회에 소개한다.

따라서 보스워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안정만을 주장하는 북미 교회들은 교인들의 안전과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교인들을 위한 보듬들만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한다.

또한 보스워는 미국이 여전히 세상에 선교사들을 최대로 파송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부심과 교만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한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이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선교사들에게 배운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든지 가지 않는 곳이 없다. (3면으로 계속)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제: **들오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Word of Life to
자녀들에게(신 6:4-9) Our Next Generation!

일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 (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예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더운 귀한 사역자가 되실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면

반 창조질서 이란 인구정책 딜레마



3면

"나는 신라라는 리더인가?" 점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7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12)



13면

제한된 접근국가의 ... (4) - 노봉린 박사(선교학 교수)

Now is the time to experience hope

일시: 4.12-13, 2013 @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4/12 Friday Night Gathering 6:00-9:00pm
4/13 Saturday Seminars 2:00-4:30pm
Saturday Night Gathering 5:00-8:00pm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Main Speaker: Dr. John C Kim (President, JAMA)
○ Friday Evening: 젊은이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라(행 2:17)
○ Saturday Evening:나의 정체성과 오너쉽(요 1:12; 롬 8:17)



김춘근 장로 (자마 대표)

Saturday Seminar Speakers (2:00-3:00pm/ 3:30-4:30pm)
○ Pastor Bert Yun: "What's happening? I want to study."
○ Dr. Daniel Park (Azusa Pacific University): "What you want to be?"
○ Pastor Doosik Bang: "Let's talk about Sex."
○ Young Lee (VP/Bank of America): "Seeking God in the workplace"
○ Kenneth Han(Attorney): "Legal Issue Consultation"
○ EunKyung Kim (Art Therapist): 부모님들을 위한 한국어세미나

문의: 323.594.2060
hoperegained2013@gmail.com



주님의영광교회 | 아주사퍼시픽대학 한인학생회



시론

부활에서 부활로



민경업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이 밝았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과 함께 하는 부활절은 일년중 가장 희망찬 절기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철저한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부활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일전에 어떤 유명 종교인에게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가 극락왕생을 했는지, 정말 극락이라는 것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종교인은 놀랍게도 교회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는 말을 따라하게 하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있다고 믿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답을 하였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좋겠는가? 아니면 죽어서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좋겠는가? 그러니 천국 갔다고 믿으라." 그에 의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부활이 있다고 믿으라 할 터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바 그리스도의 부활은 철저한 역사성에서 시작한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고전15장). 성경 자체적으로도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있다. 유명한 기독교변증가 조쉬 맥도웰은 청년의 때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부인한다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유럽으로 건너가 각 도서관을 뒤지며 연구하였다. 그는 주로 무신론자였거나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신앙을 갖게 된 대표적인 지성인들을 연구하였다. C. S. Lewis나 Frank Morrison 이외에도 수많은 지성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결국 땅거미가 저가는 영국의 작은 도서관에서 "이것은 진리야"라는 말을 여러 차례 외쳐 사서들을 놀래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부활 신봉자가 되었다.

기독교가 이토록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 개개인의 부활을 이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뒤이어나 수없이 이어질 신자들의 부활을 예고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연습할 수 있다(고전15:31). 죽어야 부활이 주어지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대망하는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빌립보서를 통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였다. 그는 오래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잡혔다. 바로 그 신앙이 자신 속에서 날마다 불타오르기를 사모하였다. 율로우크리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몇 년 전 자기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교회 뿐인가. 한국교회도 포함하여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라오디게아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발거벗은 모습을 모르는 교인들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닐까.

둘째는,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지나간 것은 칭찬받을 일이든 비난 받을 일이든 잊어버리겠다고 하였다. 처질 수상의 말처럼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갚을 것이 있다면 갚으라. 그러나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어차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셋째는, 미래지향적인 삶에 몰두하는 것이다. 바울은 앞에 있는 쏫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100미터 달리기 선수가 전심전력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를 보여준다. 너무 여러 가지에 신경 쓰는 것은 우리의 달음박질을 더디게 만든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고 사명은 큰 것이다. 그러므로 사명에 헌신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쏫대를 향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그 날을 향해 줄기차게 달음질해야 한다. 가다가 넘어지면 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된다. 부활이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현재의 곤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날에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을 수 있다!

반 창조질서 이란 인구정책 딜레마

(反) LA타임스, 억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돌아선 이란 현실 보도

2011년 세계 인구 데이터(2011 World Population Data Sheet)에 의하면 전체 인구 7,790만 명의 이란의 출생률은 6명으로 세계 평균 출생률 2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아시아 평균 출생률인 7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이란의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한 명의 여성의 출산하는 아기의 평균 명수)도 1.9명으로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인 2.5명과 아시아 평균 합계 출산율인 2.2명에 모두 미치지 못한다.

이란은 20년 전 이라크와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예상되는 자원 부족에 따라 인구를 억제하는 것만이 이란을 위한 정책이라고 믿어부쳤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재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경제 인구 확보에도 절절할 정도의 곤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란 정부는 강제성을 띠우고라도 다출산을 장려할 것이다. 또 다른 바벨탑의 역사가 주는 뼈아픈 교훈을 이란을 비롯한 국가들이 겪고 있다.

따라서 LA타임스(Los Angeles Times)는 20년 동안 진행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오히려 경제 안정성을 위협 받고 있는 이란의 현실을 심도 있게 보도해준다(Iran urges young couples to have more babies: The birthrate is down amid economic instability caused by sanctions, leaving leaders worried the welfare system will be burdened and productivity diminished)

이란의 젊은 가정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 하지만 높은 물가 때문에 그 뜻을 접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이란 정부는 연이은 국제 사회의 제재들로 이란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부부들 때문에 고민이다.

유엔은 이란의 인구 증가율을 1%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조한 인구 증가율에 우려하는 기관은 정부만이 아니다. 이란의 신정 체제 지도자인 이슬람 성직자들도 출산을 장려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령화 되는 인구 전망은 복지 제도에 부담을 줄 것이며, 생산성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이란의 지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새 가족 정책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던 이전의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다. 20여 년 전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이란 정부가 인구의 폭발적 성장이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인구 통제 정책을 시작하였다. 국가가 각 가정에게 2명 이하의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에게는 정관 절제 수술을 무료로 시술해줬다. 하지만 새 가족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란 보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병원에 정관 절제 수술 또는 불임 수술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리 보냈다.

정부가 피임의 수단을 제한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가정이 피할 수 없는 출산으로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또한 부유한 이들은 비밀리에 낙태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론으로, 세계 인구 최대 국가인 중국이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경제 인구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란 역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 대신 오히려 거주장소인 집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 인구 폭발이 우

대 이라크전 후 자원부족으로 인구 억제정책 20년 만에 기본 경제 인구확보에 곤란 겪어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란의 중위 연령(median age, 나이순으로 하여 전체 인구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의 나이)은 현재의 27세에서 2030년 40세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란의 여성 심리학자 마흐주리는 이란 사회는 최근 여성에게 단순한 가사나 자녀 양육보다는 사회 활동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란의 가정은 경제적 부담으로 한 자녀 또는 최고 두 자녀만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녀 교육비도 이란의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평민이 좋지 않은 이란의 공립학교도 학비를 받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학비는 아주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단순한 수준의 유치원도 이란에서는 한 달에 미화 150달러의 학비가 드는데, 이란 숙련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이 미화 500달러 정도이다.

타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젊은이들의 성향도 자녀 출산을 막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란 여성들은 보수 이슬람 가치와 반대되게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자녀 출산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란의 사회학자 파쿠리는 이란의 남성들은 개인적인 생활 방식을 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서 남성을 따라잡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테헤란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 남성과 그의 아내는 자녀가 자신들의 미래 설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보다는 호주 이민을 위해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겨우 생계를 이어갈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와 처의 부모는 자녀를 더 출산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20대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이란 정부의 새 가족 정책은 다자녀 출산가정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택구입 대출에서 낮은 이자는 물론 여성들의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의 금전적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족 정책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가 지난 2012년 가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위대성

을 달성하기 위해 이슬람 공화국 이란은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인구 통제 정책을 중단하고 인구(현재인구 7,500만 명 정도)를 1억5천만 명과 2억 명 사이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선언한 이후 공개했다.

이란의 일부 고위 관리는 10대 청소년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란의 한 고위 이슬람 성직자도 출산을 높이는 것은 이란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며 가세했다. 이란의 이슬람 성직자들은 곧바로 이 새로운 인구 정책을 설교를 통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려되는 중국이나 인도와는 달리, 이란은 주변국들 간에 잦은 전쟁 때문에, 인구 억제 정책을 지난 20년 동안 펼쳐왔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제지해야만 이란의 미래가 보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 사건을 인간이 대신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란인들에게는 자녀는 선물이나 사랑의 완성이 아닌 경제적인 부담이며, 커리어와 미래에 나은 삶을 방해하는 짐이 돼버렸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침범할 때 인간이 겪어오는 시험대에 이란은 또 다시 올라선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나는 신뢰받는 리더인가?” 점검

리더십저널, 오브리 맥퍼스 목사의 영향력 있는 리더십 확보 소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이다. 리더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향력도 깊어질 것이다. 더욱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원하든 리더라면 신뢰 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신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리더가 신뢰를 쌓으려면 다음 요소들이 필요하다.



인격을 닦아라
리더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리더의 밑바탕이 되는 자격요소이다. 올바른 인격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무엇보다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모든 대인관계의 기반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는 리더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리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라
리더에 대한 신뢰 형성의 세 번째 요건은 명확한 방향성이다. 요즘 사람들은 리더,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 그러기에 리더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돌봐주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신뢰가 형성된다. 돌봄이란 리더가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관심의 표현이다. 또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돌봄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듯 리더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봐

신뢰 무너진 후 회복위한 노력보다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이 더 중요

가 제안하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신뢰를 쌓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고자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

야야 한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성경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함을 갖춰라
신뢰 형성의 두 번째 요소는 능력, 다른 말로 유능함이다. 유능함이란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다. 즉 뛰어난 재능으로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은사, 지식,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리더들은 이것들을 개발하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유능함은 리더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인간의 유능함은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리더는 늘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줘라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알려주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의심을 받는다. 리더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인들에게 알려 주어 원활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리더는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신뢰를 깊이 쌓아야만 한다. 만약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위에서 제시된 요건들을 통해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 신뢰가 무너지면 리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지 후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쌓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신뢰가 무너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 나아가 신뢰가 깨어지기 전에 오히려 깊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사람들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리더를 따르게 될 것이다.

돌봄의 자세를 가져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성의껏

(1면에서 계속)
사명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로 달려가는 열정이 넘쳐서 차갑게 식은 미국 교회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세계 선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스워 교수 소망이다.
보스워 교수는 세계 선교 지도자들과의 컨퍼런스와 만남을 통해서 미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발견했다. 발견했다기 보다는 선교사들을 대거 파송하고 있는 신흥 선교 강대국들의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신학 교육과 훈련에 미국 교회는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북미 교회의 사명이다. 미국이나 북미 교회들이 가진 자산들인 신학교들과 도서관 그리고 선교기관들과 훈련된 교수진들이 현재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국가들에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난처였던 미국으로 선교의 촉대를 옮기셨다. 미국이 영국을 이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등장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쓰셨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독일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로마카톨릭주의가 아닌 프로테스탄티즘, 곧 회복된 복음이 세계 전역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영국을 쓰셨다. 그렇다면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은 하나님께서 영국을 뒤이어 지속적으로 기독교의 세계적 확장을 위해 쓰시고자 일컫는 세우신 나라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들을 북미 대륙으로 보내시어 선교 국가를 건설하도록 하신 것이다. 19세기 말 이후 미국으로 인해 더욱

방대한 지역에 회복된 복음, 곧 프로테스탄티즘이 확장됐다. 아직까지 선교사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확실히 미국의 위치와 상태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다. 때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고, 경계선은 그분에 의해 그어졌다. 하나님은 지난간 시대에 로마 제국과 독일 그리고 영국을 예비하신 것처럼 미국을 예비하셨다. 이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의 신흥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선교사들의 열정을 기억하면서 나아가 때 미국 교회는 여전히 세계 선교의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자!

스몰그룹닷컴, 교회성장의 한 축 소그룹 활성화 방안 소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생을 지내는 동안 여러 형태의 소그룹에 속하게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그룹부터 학교,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그룹을 겪으며 생활해간다.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많은 소그룹들은 구성원들이 갖는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임들이 이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그룹이란 모임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서로를 알고 또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랑을 주고 또한 받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소그룹의 모임에 가게 된다. 그렇기에 사람 사이에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모임들은 계속해서 이뤄지기가 힘든 것이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이뤄진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만 지식과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뤄질 때 훨씬 효과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좋을까?

장소에만 국한되는 예배가 아닌 개인 삶의 영역까지 침투 마음 정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임재 더 온전히 느껴

“소그룹이란 서로가 자신을 공개하는 비용을 가껴이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설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 하면 ‘찬양’과 ‘경배’를 떠올린다. 한편 ‘소그룹’이라 하면 다락방, 목장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구역예배 드리는 모습을 쉽게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에서 주일예배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순서와 형식을 동일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
만약 소그룹 모임 내내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 처음 나온 지체들이 소그룹에 더러 있다면 그들은 기도만 하는 이 모임이 익숙지 않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잘 넘어선다면 그들에게 아마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그룹을 다음 순서로 인도해볼까:
△우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나눠 보십시오. △가사에 집중하며 좋아하는 찬양을 다 함께 불러 보십시오.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난 것을 나눠 보십시오.
또한 다른 지체에게 소그룹을 위해 적절한 시편을 읽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줄 것을 부탁해보자. 다음으로는 시편의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고 왜 공동체에 유익한지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모든 지체가 편안한 자세로 기

도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필요하다면 기도회 필요한 요소들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서너 개의 공동 기도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 마지막 마크로 인도자가 대표로 이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는 시간은 소그룹의 형편에 맞게 하되 넉넉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도도 모임을 마친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 이날 가졌던 모임에 대한 소감을 나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욱 온전히 맛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예배이다.
결국 소그룹 모임은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위에 소개한 형식은 단순하게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지체들의 모습을 점점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예배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 침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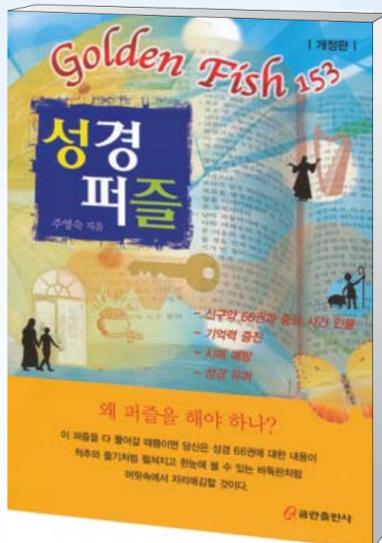
Golden Fish 153

한국 최초 성경퍼즐

신구약66권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사건, 내용, 인물들을 모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증진, 치매예방, 성경유머

이 퍼즐을 다 풀어 갈 때 썸이면 당신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척추와 즐기처럼 펼쳐지고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바둑판처럼 머릿속에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 책은 어린아이부터 어른 누구를 막론하고 쉽고 재미있게 성경의 줄거리를 알아 가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을 재미있게 이어가다 보면 성경속의 모든 중요한 사건과 성경인물들을 다 만나 볼 수 있다.

각 장의 내용요약과 함께 그 장에 나오는 명칭 배경 저자 연도들을 간추려 내용운곽을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성경유머와 함께 지루하지 않도록 각 장을 풀어가도록 하였다.

우리의 머리도 두뇌운동을 하지 않으면 육신이 병이 들듯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린다고 한다. 다양한 메카니즘의 수 만큼이나 그 원인은 다양하다고 한다. 치매예방의 가장 좋은 약은 처방 화학약품이 아니라 퍼즐의 기호기 가진 낱말의 연관성을 찾는 것으로, 그러다보면 두뇌회전이 되고 암기력이 생기며 사고하며 풀어감으로 내 안에 죽어가는 뇌세포를 깨워 병들지 못하도록 운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국사람들은 퍼즐 책을 삼박처럼 가지고 다니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버리지 않고 버스안이나 공원에서 퍼즐을 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은 자기전 퍼즐을 풀고자는 것이 그 많은 하루일과 중에 하나라고 한다.

지적인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진다고 하지만 훈련에 따라서 천재의 가능성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하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누렸으면하는 바램이다

아버이날 최고의 선물



저자: 주영숙

E-Mail: goldenfish153ju@gmail.com

주문: (646)595-5125

※ 구입문의: 가격 \$12.00 / 미국내 우송료는 Free
※ 교회, 단체 할인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버림받은 사람

저는 30대 중반에야 아들을 얻었다. 얼마나 사랑스런지 몰랐다. 아기가 아플 때면 속이 얼마나 아픈지 말로 표현이 안되고 손에 일도 안 잡혔다. 그런데 장모님이 와서는 "괜찮다! 다 크려고 그런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말이 참으로 서운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나고보니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

들을 보면 아프고 나면 훌쩍 커이고 툭툭해진다. 감기를 앓거나 치킨박스를 앓고 나면 눈빛이 뻥뻥해진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를 안 잡혔다. 그런데 장모님이 와서는 "괜찮다! 다 크려고 그런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말이 참으로 서운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나고보니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

상 숨겨줄 수 없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넣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버림받음이 그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부모가 그를 붙잡았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 부모가 손을 피우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인생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모세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은 버림받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이번에는 그 형제들끼리 싸운다. 모세가 화해를 시키러 하자 '누가 당신을 우리의 법관을 삼았는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는가?'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았겠는가? 사건현장에 있던 자기 동족이 모세가 그 애굽사람을 죽였다고 고발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갈 것이다. 결국 동족에게 버림받은

것은 두 번째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가 쫓겨간 곳, 버림을 받아서 가 있는 광야가 그가 축복을 위대한 인물로 변하는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스테반은 행전7:31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했었을 때에 모세가 주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없다. 그러나 광야에 갔을 때 비로소 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모세도, 다윗도,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나온 사람이다.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지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든 질병이 광야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싶는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에 놓여놓고 병상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평소엔 잘 듣지 않으면 병상에서 듣게 된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실패가 광야일 수 있다. 사업실패, 인간관계실패, 이런 아픔과 허탈을 통해서 광야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어서 광야를 만난 것이라고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사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다. 의로운 요셉도 13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감옥생활도 해야 했다. 그가 죄가 있었는가? 아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죄의 유혹을 극복한 사람이었다. 유혹을 극복한 까닭에 그가 들어간 곳이 감옥이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종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넓은 길이 있어도 성도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 좁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누구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에도 고통은 올 수 있다. 버림받은 아픔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버림받음이, 고난의 광야가 축복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라는 것을 명심하자. 실패와 좌절을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어서 오늘 이런 고난의 광야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지고 홀로 서며 인내케 하시는 훈련들을 잘 받아 우리 남은 인생 후반전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푸 / 른 / 초 / 장

조응철 목사
(갈보리장로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해골 곳(갈보리)이라는 곳 근처인 동산에 아리마대 요셉(이스라엘 공회의원인 존귀한 사람)이 준비해 둔 새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사53:8). 무덤이 있는 그 동산, 그 부활의 동산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진이 나고 지키던 군사들은 두려워 떨며 넘어지고,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님의 시신이라도 만져보고, 유황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마리아 앞에는 빈 무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서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부드러운 천사의 위로하는 말

외로이 울고 있을 때, 양의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 그 다정한 음성으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고 "어찌하여 우느냐"고 하시며 위로하셨으니 예루살렘 성밖 동산, 어둡침침한 동산, 두려운 저기압에 싸여 있던 동산이 밝아오는 동쪽의 빛과 함께 인정의 꽃이 핀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랍오니여!(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며 선생님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영드렸으니 인간이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입니다.

부활의 동산은 꽃핀 동산이요, 노래하는 동산이요, 희망의 동산이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천국의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2000년 전 부활의 동산처럼 기쁨의 동산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울함에 잠겨있는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악의 세력 밑에서 절망 중에 한숨짓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았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들! 배신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못난 제자들을 가리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과거의 불화와 배신과 불신을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서로 형제들이라고, 자매들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손잡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기쁨과 평화스러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동산(교회)이 되어 우리 다함께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전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스며들음을 몰아내는 밝아오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스인정의 꽃을 피우는 교회로 만듭시다. 스기쁨의 찬미를 부르는 교회가 되어 기쁘게 삽시다. 스평화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납시다.

부활의 동산

(요한복음 20:11-18)

1. 밝아오는 동산입니다.

찬 서리 내리는 싸늘한 동산, 쓸쓸하고 적막한 동산, 모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동산이었습니다. 죽은 듯이 조용하고 암흑과도 같은 무시무시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항도 없이 희망의 봄 동산은 밝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요셉이 미리 준비한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지냈습니다. 역올하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무덤은 흑암의 장막으로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삼일간이나 울분과 비애에 싸여 있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안식일 후 첫날 미명에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큰 지

대의 빛이 밝았습니다. 슬픔이 가고 기쁨이 왔습니다. 사망권세 깨어지고 생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미명 깜깜함은 지나가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의 무덤은 영원히 비어있습니다.

2. 부활의 동산은 인정의 꽃동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은 그 불변의 권세 악독과 폭행과 잔인한 세상, 죄악의 세력, 암흑의 분위기 속에서는 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울고 서 있는 그녀에게 동정할 자가 있을 수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곳이 인정이 꽃핀 동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천사의 위로에도 눈물을 멈출 줄 모르더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치 목자 잃은 양이

3. 부활의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억울함도, 슬픔도, 그 두려움도, 그 사망의 공포도, 그 고통도, 이제는 간데없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아침은 점점 밝아오며, 아름다운 기쁨의 태양은 미소를 띠우며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봄 동산의 풀포기는 아침 바람에 흔들거리고, 꽃봉오리들은 기쁜 듯이 입을 벌리고, 새들은 높이 날아 올라 아침 찬송을 불렀을 것

라"(계21:3-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21:1).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21:6-7).

4. 부활의 동산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동산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여름학기 본교강의안내

May 13-May 17 (5월 13- 5월17일)

IM 815 Mission Strategy (선교전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Julien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Marc Wooter

May 20-May 24 (5월 20 - 5월 24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M 801 Leadership in Local Church(지역교회 리더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effrey A. Gill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3년 5월 11일(토) 오전 9시
장소: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Orthopaedic Capital Center

Off-Campus Courses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S. Park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Dr. Ken Bickel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S.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부활절이 지났다. 부활절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기독교만의 유일한 절기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남기셨다. 최근에 예수그리스도의 역사상의 논쟁과 함께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 The Lost Tomb of Jesus' 다 시 화자 되고 있다. 이것은 James Cameron의 작품으로 2007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한 할리우드 수준급의 기록물로서 Cameron과 Simcha Jacobovici가 예수님 가족무덤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그들은 로봇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덤을 조사했다니 초대교회 기독교의 상징인 고기 모양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것은 로마의 카타콤에서

첫째로, 마리아, 요셉, 예수 등의 이름들은 당시 유대세계에서 가장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Ben Witherington and Gary Habermas의 Media Advisory of Christian Newswire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마리아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 가장 흔한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에도 수많은 마리아들이 나온다.

둘째로, 요셉이라는 이름은 요세라는 이름으로 발견되었다. Cameron과 Jacobovici는 이 가족묘에서 예수와 요셉의 이름을 발견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또한 발견된 이름이 예수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설사 그 이름이 정확하

도 수십년 이상 사용된 무덤이다. 따라서 무덤에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골도 포함될 수 있고, 양자나 부모님들, 혹은 청지기들의 유골도 있을 수 있다.

다섯째, 유골함의 이름도 그렇다. 고대의 문서들이나 모든 자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불리워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이었다.

여섯째,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다. 예수님의 유골은 물론 다른 모든 식구들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유골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수 있었겠는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메시지를 믿고 회개하고 거대한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시작도 하기 전에 거짓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

Gary Habermas의 Media Advisory of Christian Newswire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제시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는 심각하게 조작된 것이다.

아홉째, 발견된 유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할 역사적인 증거도 없고, 그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가설을 세우는 비논리적인 가설의 탐을 세우는 것이다.

열번째, 예수님이 결혼을 한 적이 있거나 아이들을 가졌다는 그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 막달라 마리아와의 연결은 복음서의 기록이 아니라 4세기 영지주의 문서에서 발견된, 증거가 없는 힌트를 기초로 세운 것이다. 사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이 키스했다고 주장하는 사본에도 어느 부위에 키스했다는 말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열한번째, 같은 무덤에서 발견했다는 10번째 유골상자는 야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유럽과 미국의 초기에 세워진 명문대학들이 교회를 통해 세워졌고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랜스에서 이희은

A: 구약성경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홍 목사가 쓴 "다음 세대의 날개"라는 책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세기 이후에 유럽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1158년 이탈리아의 볼로냐에 볼로냐 대학(University of Bologna)을 시작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이라는 볼로냐 대학이나 그다음 세워진 파리대학은 둘 다 주로 신학을 가르칠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클레르노의 의학대학, 볼로냐의 법학대학, 프랑스 파리의 신학대학,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 등 최초의 유럽 대학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 학자들에 의해 세워졌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위도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중세기 대학의 꽃은 단연 신학부였고 최고의 인재들은 신학부로 몰려들었습니다.

1158년 이탈리아 볼로냐대학부터 미국 아이비리그 모두 기독교학교로 출발

유럽 대학들의 하루 수업이 시작될 때 교수와 학생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고 수업이 끝날 때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의 핵심적인 교수들이나 학장 총장들이 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17세기 초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이민 온 청교도목사들과 사회지도자들은 다음세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차세대 젊은이들의 지적성장을 위해 높은 수준의 대학을 세웠는데 그것이 미국의 아이비리그(Ivy League)대학들이 이 당시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아이비리그의 최고대학으로 일컬어지는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도 깊은 기독교적 뿌리를 가지고 태동했습니다. 1636년 보스턴의 찰스 강변에 위치한 뉴타운에 존 하버드(John Harvard) 목사의 유언에 따라 작은 대학 하나가 세워졌는데 학교의 주 설립목적은 보스턴 지역에 목사를 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3년 후 이 대학은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대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예일대학도 존 데븐포트(John Davenport) 목사의 영향을 받은 경건한 청교도 교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데븐포트가 이끄는 무리들 중에는 탁월한 상술과 학식을 지닌 비즈니스맨들이 끼어 있었는데 그중에 데이빗 예일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후 예일이 명문 예일대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1760년대 건국 직전의 미국에는 9개 대학이 있었는데 모두가 기독교적 신앙 토대위에 세워진 대학들이었습니다.

17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명문 대학의 졸업생들 중에 최고의 성적을 받은 이들의 절대 다수가 목회자가 됐고 그 다음은 정치인들이나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 됐습니다.

이렇듯 근대 서구교육의 발전사는 기독교 신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런던의 기라성 같은 지성인들에게 설교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불타는 논리(Logic on Fire)"란 말을 즐겨 썼습니다. 학문적인 탁월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을 때 실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 의 허구성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발견된 사인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의 가족무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비평적인 전문가들은 이 기록물이 잘 만들어진 흥행물이지만 하지만 역사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가상에 근거한 기록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주장은 오래된 주장이다. 오래된 뉴스에 새로운 해석을 한 셈이다. 이 무덤은 사실 1980년에 발견되었다. 1996년도에 영국의 BBC가 특집보도를 했다. Dr. Gary R. Habermas는 The Lost Tomb of Jesus 다큐제작에 참여한 James Tabor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한 후 이들의 발견으로 기독교 신앙에 도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제작팀은 탈비웃 무덤이 예수님의 묻힌 무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 무덤을 계속 연구해 온 저명한 유대고고학자 Amos Kloner는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과 연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능성도 강하게 부인했다. 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대부

다 해도 요셉이나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 이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인 Richard Bauckham은 요셉이란 이름은 적어도 45개의 유골상자에서 발견되었고, 예수는 22개의 유골상자에 새겨져 있었다 했다.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도 적어도 3-4개의 유골상자에서 나왔다.

셋째로, 그들이 제시한 DNA 증거들도 예수와 마리아와 사이의 결혼가설에 긍정적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녀는 함께 발견된 4명의 남자 중 하나와 결혼했는지 아니면 다른 가족일 것이라는 추측만 갖게 되었다. 기억할 일은 가 가족무덤은 한 세대의 유골들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유골들이 함께 모인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왜 예수님의 가족묘지가 예루살렘에 있는가에 대해 합리적인 대답이 없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가족묘지를 거기에 그것도 1세대가 더 되는 가족들의 유골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 묘지는 큰 부자의 가족무덤이다. 이 묘지들은 적어

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 3천명, 5천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제외하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일곱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부활의 증인은 남자만 500여명이 훨씬 넘는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유대인의 부활 신앙은 문자적인 육체적인 부활인데 예수님의 가족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야고보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덟째, 제작진의 주장과 달리 1세기 유골상자에 그려넣은 유대인 예술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분명 후대에 생긴 습관이다. Ben Witherington and

보의 유골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모든 고대의 자료들이 동의하듯이 나사렛 예수의 무덤은 바로 빈무덤이 되었다. Talpiot 무덤의 데이터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나타나신 부활의 증거들을 부정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역사적 실존인물 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거보다 더 많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자! 부활의 선포하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Seeking Youth Pastor (Full time)

아리조나 템피장로교회(Chandler, Arizona)에서는 2세 Youth 학생들을 향한 마음과 비전이 있는 Full time 전도사님/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Temp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Chandler, AZ) is seeking a full time Youth Ministry pastor who has the heart and a vision for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Job Description:
- Leading Youth Worship on Sundays and Saturday Evening Bible Study.
- Plan and execute yearly events (Summer Mission, Evangelism, Revival, Winter Retreat etc).
- Teachers' Training and lead PTA meetings.
- Administrative Work during weekdays.

The qualifications we are looking for are as follows:
1. Able to relocate to Chandler, AZ. (첸들러, 아리조나로 이사가 가능하신분).
2. Graduated with M, Div or above from recognized Seminary.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곧 졸업하실 분).
3. Ministry experience of working with Youth students. (학생들 사역 경험이 있으신분)
4. Must speak English fluently, preferred if you can speak Korean as well. (영어는 필수, 한국어도 가능하시면 plus).
5. Ability to be flexible and multi-task. (사역적으로 유연성이 있으며 여러가지 사역을 함께 할수 있으신 분)
6. Looking for spiritual leadership, initiative, passionate and responsible. (영적 리더십과 추진력,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
7. American citizen or legal resident.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

Required Documents (보내실 서류):
1. Resume with cover page (Please include your picture)
2. Personal recommendation letter:
3. Brief Statement of Faith and your call to ministry

If you are interested or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Rev. Jeong Yong Yoon Senior pastor pastortkpc@gmail.com, Church Website: www.tkpcz.com

아리조나 템피장로교회

모나리자 스킨케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샤워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목회서신

늙어감과 성숙해 감 (Growing old vs. Growing up)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그

학생들에게 인기가 만점이었다고 마칩내 학기 마지막에 미식축구연회(banquet)에 초청을 받아 학생들에게 스피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늙는 것(Growing old)과 성숙해가는 것(Growing up)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일 열아홉살 당신이 일년동안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도 당신은 일년후 스무 살이 될 것입니다. 만일 팔십칠세인 내가 일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어도 나도 일년후 팔십팔세가 될 것입니다...누구나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것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숙해가는 기회'를 변화 가운데 찾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로즈 할머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주일 후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녀의 장례식에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삶을 기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로 하루를 채우며 한해 두해 나이만 먹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합니까? '이대로 늙어가는가'하는 두려움이 있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답게 늙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배움에는 남녀노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배워야 성숙해집니다. 배우며 살아야 멋있게 늙어갑니다. 바로 배우면, "배워서 남을 주느냐"에서 "배워서 남을 주자"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배우지 않으면 내가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배우지 않는 젊은이는 육체적인 나이는 젊지만 그의 생각은 점점 굳어지고, 늙고 고리타분해집니다. 그러나 배

우는 노인은 육신의 나이는 들어갈지 몰라도 그의 인생이 더욱 멋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단순히 늙어가는 인생은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삶이지만, 인생의 어떤 변화 가운데 가까운 나이에 도달했는지라도-매일 꿈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성숙해가는 사람은 보람되고 뜻 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다른 이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 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며(골2:7), 그리스도의 온전히 충만한 상태에 까지 성장해야 합니다(엡4:13).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시119:105)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갑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나은 것이 더 성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늙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필요 없지만 성숙은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을 배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일에 헌신하며 그 일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인생을 허무한 일에 소모하거나 낭비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을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일에 쓰임 받기 위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의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 성숙해 갑시다. 죽은 앞에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로즈 할머니처럼,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권총 차고 예배 보라고?' 미 남부 시골

조지아 주의 거대 여당인 공화당이 교회 예배당과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해 총기규제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WXI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 주 하원은 전날 공화당 주도로 총기규제안화법(SB101)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55표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올해 회기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아 주는 미국 보수파의 아성으로 공화당이 상·하 양원과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속사와 운동장 관중석을 제외한 공립대학 캠퍼스 내 모든 건물을 비롯해 교회, 술집, 급속탐지기와 보안요원이 없는 공공기관에서 성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 공립학교 교직원들도 학교 안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찰리 그레고리(공화) 하원의원은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교장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것"이라며 "현행 총기규제가 사람들을 땅 위의 오리로 만든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우리의 자위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미시시피, 오리건, 유타,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대학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 주가 이 대열에 동참하면 총기규제를 완화하는 주가 건 접할 수 없이 늘어날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지하교회 단속 강화...

중국 당국이 여러 지방에서 가정교회로 불리는 지하교회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가 전국적인 기독교 탄압의 서곡이 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미국 아시아자유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반중(反中) 인권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산동성 자오저우시, 광둥성 광저우시와 선전시, 저장성 항저우시, 충칭직할시 등지에서 가정교회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징다오시에 속한 현급 도시인 자오저우 선전 당국은 최근 당 기층조직인 항·진당 위원회에 가정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문건을 내려 보냈다. 차이나에이드가 입수한 문건은 가정교회의 위치, 지도자, 핵심 신자, 전례 신자 수, 선교 활동, 그리고 해외 단체와의 연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문건의 지시 사항에는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중국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에 대한 가정교회 신자들의 태도와 가정교회가 당국의 공식 지시를 수용할지의 여부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RFA는 전했다. 중국 가정교회연합회 자오저우시 지부 부지부장인 잔강목사는 당국이 자신의 구역내 모든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자오저우에만 가정교회가 10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잔 목사는 당국이 향진과 촌(村)의 통일전선 조직, 촌 위원회, 주민 등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가정교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선전, 항저우, 충칭 등지에서도 이런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제 조사가 10년내에 지하교회를 없애려는

당국의 2011년 '비밀 지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9·11연루 시리아인, 미국서 떨궈져 생활

9·11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인이 미국으로 망명해 떨궈져 생활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스전문 방송 채널인 폭스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9·11테러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요르단인 예야드 알 라바바와 함께 9·11 테러범들에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우드 체하제가 지난해 11월 정치적 망명을 허가받아 현재 뉴저지 주 북부도시 패터슨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패터슨 시는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1명이 공격 감행에 앞서 거쳐 간 도시로, 테러 음모의 시발점으로 지적되는 곳이다.

보고서에선 체하제와 라바바가 9·11 테러가 발생한 해인 2001년 2월 워싱턴DC에서 알 카에다 지도자인 안와르 알 울라키와 접촉했고 그로부터 2개월 뒤 항공기 납치범 4명을 만나 정착을 도왔다.

9·11테러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7명은 같은 해 5월 뉴저지로 옮겨가 한집에서 함께 살았다. 조사에 참여한 뉴저지 주 수사관인 짐 부시와 밥 부코프스키는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알 울라키와 체하제, 라바바가 테러와 관련해 더욱 긴밀한 관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집트 무르시, 무슬림형제단 공격한 시위대에 경고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본부 청사를 공격한 시위대에 경고했다고 일간 알 아흐람이 25일 보도했다. 무르시는 또 이번 폭력을 선동한 야권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무르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지난 22일 오후 카이

로 무카탐에 있는 무슬림형제단 청사 주변에서 찬반 세력이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충돌해 최소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나온 것이다. 같은 날 카이로 본부 외에 전국의 무슬림형제단 사무소 4곳이 약탈당하기도 했다. 앞서 탈라트 압둘라 이집트 검찰 총장은 무슬림형제단 변호인의 소송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야권 인사와 활동가 일부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르시는 "모든 이들은 평화롭게 시위를 할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혁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여하한 수단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성공회 수장에 웨일 주교 취임

전 세계 7천700만명의 신도를 대표하는 영국 성공회 수장에 저스틴 웨일(57) 주교가 21일 공식 취임했다. 웨일 주교는 이날 영국 남부의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종교지도자 등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5대 캔터베리 대주교 직에 올랐다.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왕비도 참석했다.



웨일 주교는 지난해 말 동성결혼과 여성 주교 임명 허용을 놓고 정치권 및 진보진영과 갈등을 벌이다 사임한 윌리엄스 대주교의 후임으로 내정됐고, 여왕의 최종 인가를 거쳐 이날 공식 취임했다.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영국 성공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는 앞서 BBC와 인터뷰에서 많은 동성애자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깜짝 놀랄만한' 인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 때문에 동성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채널5와의 인터뷰에서는 미래에는 여성 주교 임명이 결국 허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웨일 대주교는 보수성향으로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했지만, 여성 주교 임명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저녁) ~ 25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 (818) 306-4912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12)

요단 동편 고산지대

높은 산지에 펼쳐진 넓은 들판으로 바산, 골란(Golan high), 길르앗,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등이 고원지대로 분류된다.

은 협곡을 형성하며 있어 남북교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왕의 대로(Kings Highway) 아람-다메섹-길르앗-암몬-모압-에돔을 관통, 바벨론 문명과 이

바산 고원: 요단 동쪽의 산지 가장 북쪽에 바산 고원이 있다. 바산 고원은 요단강 지류인 압복 강으로부터 북쪽으로 다메섹에 이르는 지역으로 해발 평균600m 정도 높이가 고원지대이며, 바산의 중앙지대에는 현무암의 풍화로 이뤄진 비옥한 평야가 펼쳐있다. 바산 고원은 농경에 적합해 밀 생산이 많고, 로마시대에는 큰 곡창지역 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바산은 오늘날의 골란고원(Golan Heights)을 포함하는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 산지를 말한다.

성경에서 바산은 좋은 목축지로



트랜스 요르단(The Trans-Jordan)

요단계곡을 지나 동편으로 가면 해발 800m까지 높아지는 요단 동부산지가 나타나, 이곳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도 불렀으며 이 말은 "요단강의 동쪽지역"이라는 뜻으로 트랜스 요르단은 광대한 아라비아 사막의 가장자리에 접해 있다. 이곳은 북으로 헬몬 산으로부터 남으로 홍해에 이르는 거대한 산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쪽은 몹시 높은 급경사로 요단사막과 접해 있다. 이곳은 기후가 건조해 광대한 초원이 동쪽을 향해 펼쳐져 있으며, 북으로부터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아르묵 강, 압복 강, 아르스 강, 세렛 시내의 네 하천이 깊

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고대의 도로가 고원지대를 관통해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한 많은 도시가 있다. 요단, 바산을 거쳐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이집트로 가는 국제도로가 있었다.

1. 바산 골란고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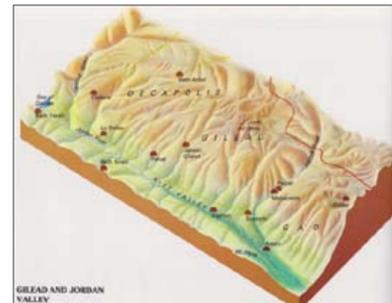
바산 골란고원 지역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평지로 상부 골란과 하부 골란으로 나뉘지며, 좋은 목초지가 형성돼 있어 목축에 적합하다(시22:12, 암4:1, 겔39:18). 성경에 하우란산 또는 바산으로 언급되는 고지대다(신4:43, 수20:8, 21:27, 대상6:71). 또 아르묵 강을 경계로 길르앗 지역과 구분된다.



언급되고 있다(시22:12, 암1:1, 겔39:18).

골란 고원: 골란 고원은 바울이 빛을 보고 개종한 다메섹이 있는 곳이다. 므낫세의 땅으로 헤르몬산(유일하게 눈이 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 동으로 걸친 길이 60km 넓이 90km의 방대한 고원지대다. 성경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스닐(신3:9; 겔27:5), 시론(신3:9; 시29:6), 시온(신4:48), 헤르몬산(시42:6-7, 89:12, 133:3, 야4:8) 가장 높은 산(마17:1, 시133:3, 89:12, 42:6-7)이다.



2. 길르앗 고원

길르앗은 아르묵 강과 모압 고원 사이에 있는 고원지대로 물이 풍부했다. 길르앗은 압복 강을 경계로 아르묵 강에 이르는 북부 길르앗과 압복강 이남(어떤 시대에는 아르스 강까지)의 남부 길르앗으로 나뉘었다. 북부 길르앗은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점차 높아져 아르묵 강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이르르면 높이가 900m 이상 됐다. 그리고 이곳에서 길르앗은 북부보다 조금 낮았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데가볼리가 속한 고원이다. 해발 1000m, 길이 30km에 넓이 76km에 달하는 지역으로 역시 왕의 대로가 지난다. 주요 도시로는 마하나임, 브니엘, 숙곳, 길르앗 야베스, 라못 길르앗 등이 있고, 향료, 몰약, 유향 등이 생산되고 목초와 숲이 우거진 지역이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서 해발 900m정도 되는 고원지대였고 가장 높은 곳인 아스론 산은 1,247m이상 되는 높은 곳에 있었다. 이곳의 북부에는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등과 같은 성경 역사상 중요한 성읍들이 있었다.

압복 강을 경계로 상부 길르앗과 하부 길르앗 지역이 구분된다(수12:2, 5). 강석회암으로 형성된 산지로, 특히 압복 강과 같은 계곡은 붉은 사암층이 만들어낸 깊은 협곡으로 브누엘, 마하나임, 숙곳을 통해 요단강으로 내려온다. 높은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으므로 일반적으로 '고원' 또는 '산지'로 부른다(수13:15-28, 민32:1, 야4:1, 렘8:22, 46:11).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으로 길르앗 지역에 속한 갓 지파의 도시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다. 레위지파 므라리 자손에게 분배됐으며(수21:38), 창세기 32장에서

는 야곱이 예서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면서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진이구나"라고 외치면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데서 유래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예서의 공격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시고, 뒤로는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었으며 이를 깨닫고 이곳의 이름을 '두 진영'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압복강: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으로 유명한 압복강은 길르앗 지역과 암몬 지역의 경계를 흐르는 강으로 그 길이는 대략 96km 정도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지류다. 압복강은 민음의 조상 야곱이 이곳을 건너 형 예서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유명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지명들이 야곱이 지나온 행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두 아내와 두 여종 열한 아들이 압복 나무를 건너 후 천사와 씨름을 했던 장소인 브니엘이 있고 형 예서와 만난 후 동행하자서 형 예서의 경계를 정중히 거절한 후 머물렀던 장소인 숙곳이 있다.

길르앗 야베스: 사울의 전사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잔인하기로 유명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사울이 그들을 구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에서 사울의 시신을 취해 자신들을 구해준 왕이 더 이상 목욕당하지 않게 했다.

칼럼 음악목회 (4)

예배모범과 찬양사역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예배모범이라고 하는 예배의 필수 요소들을 전통에 의해 또는 어떤 목적에 의해 예배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모범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막을 설계하시고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민9:15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

되"라고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제사(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는 솔로몬 왕을 통해 세우신 성전 또한 의미상 성막과 같은 것으로 그 모형 안에 예배의 절차와 요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시100:4). 오늘날 예배의 도입에서 경배찬양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제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만 찬양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성막의 모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흥회나 사경회 또는 찬양집회나 간증집회 등 특별한 목적으로 모인 예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일에 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막의 모형을 따라 예배의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다음에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야 합니다. 더 붙어 이제는 더 이상 소나 양 제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지만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의 처음 것 또는 십의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설교 다 음에 헌금하는 순서를 갖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의미대로 한다면 먼저 준비해온 헌금을 예배의 첫 부분에서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물두멍 앞에 서서 아직도 정결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의 찬송과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기도의 향단과 말씀의 떡상과 금촛대가 있습니다. 대표기도가 향단의 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말씀을 봉독하는 순서를 떡상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모두가 일어서서 경외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는다면 보다 깊은 의미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조성이신 성령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열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생명을 내어놓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를 여는 마음으로 찬양대는 생명을 다해 그 찬양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새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 의미는 사람이 거듭난 영으로 부르는 새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자신을 나타나 보시는 요소는 오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의 대변자로 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중대함은 물론 조금도 변질되지 않도록 순전한 영혼의 만나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지팡이의 역할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날마다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겐 화평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끝 부분에는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안식과 평강이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와 성도의 영적교제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천적인 예배로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막 자체 그 이상의 진정한 의미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납스 2권:다~뭇 3권:뭇가~소위 4권:소위~오늘 5권:오늘~종 6권:종~히데말 7권: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31. 옷의 기원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이라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람들이 옷을 입을까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춥거나 더워서' 혹은 '부끄러워서'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왜 독특하게 '사람만' 옷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1. 의복의 기원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들

세상 학자들은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때를 구석기 시대인 4-6만 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무덤과 벽화 등에 남겨진 증거 때문이다. 현 인류와 상관없는 네안데르탈인들이 극심한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사냥한 동물 가죽을 몸에 감싸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에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이 3만 년 전에 원인 모르게 멸종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보고(2010년 사이언스지)에 의하면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정보가 들어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그들은 우리 현대인들의 조상이었다는 말이다(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물론 진화론적인 연대/시대들도 사실이 아니다).

옷을 입게 된 동기에 대한 학자들의 학설들로는, 신체 보호설, 심리적 보호설, 이성 흡입설, 신체 장식설,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숙설 등이 대표적이다. 신체 보호설은 인간은 피부에 털도 없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추위, 더위, 해충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리적 보호설은 신앙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몸을 가려 악을 피하는 등의 신앙행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인데 열대지역임에도 주술적인 목적으로 옷을 입는 것 등을 그 증거라고 제시한다.

이성 흡입설은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이 깊다. 종종 본능을 위해 이성의 눈을 끌기 위해 옷을 입게 되

었다는 설이다. 다윈은 대부분의 동물들의 미에 대한 관점이 이성의 주의를 끄는 것에만 국한되어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신체 장식설은 자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은 욕구에서 옷을 입게 되었다는 설이

흐르면서 민족에 따라서는 수직스럽게 생각하는 신체부위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양심이 화인 맞아 부끄러움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민족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부위를 가리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위를 가리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혹은 '자연을 보라'는 구호와 함께 나체주의를 찬성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 나체주의와 진화론

나체주의는 19세기의 엄격한 도덕규범에 반발하여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옷을 입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 장소들에서 계속해서 나체 퍼포먼스를 한다는 뉴스를 듣는다. 그들은 사람이 처음부터 옷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체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물론 순서로 보면 성경에서도 나체주의자들의 주

론 이런 고고학적인 연대는 고무줄 늘어나듯 하기 때문에 믿음만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성경이 들어가기 오래 전에 이미 한자가 만들어져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뜻글자인 한자에서 창세기 1-11장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글자 백여 개가 발견되었다(“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미션 하우스). 그 글자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벨탑사건을 경험했거나 그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벨탑사건 이후여야 되므로 BC 2250년경 이후였음을 알 수 있다.

성경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한자들 중에 옷에 관한 글자 나(裸)라는 것이 있다. 이 글자는 옷을 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구성이 성경 역사를 모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옷을 의미하는 의(衣)와 열매(과일)를 의미하는 과(果)를 함께 사용하여 벗는다는 의미의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옷을 벗는 일과 상관이 있지만 과일

사람만 입는 옷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것 부끄러워서 입는 옷의 기원에서 복음의 의미 찾아



옷의 기원과 옷에 대한 올바른 의미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처럼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러나

다. 마지막으로 정숙설은 기독교의 옷의 기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수치심이 생겨 몸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학자들은 다른 여러 가지 옷의 기원설에 대해서는 증거들을 대며 옹호를 하지만 기독교적인 기원설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들은 허리만을 감싸고 다른 신체부위들은 다 드러내 놓는다는 것이다. 즉 문화와 시대에 따라 수직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으므로 성경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정숙설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아주 작은 반대 증거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처음을 알 수 없게 변했고 왜곡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옷을 입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체주의자들 중에는 사람을 자연의 일부인 동물들에 비교하면서 나체주의를 찬성한다.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고 있지 않던 그 속에는 진화론적인 사상이 들어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스스로 옷을 입는 동물은 하나도 없고, 사람도 수많은 동물들 중에 한 종으로 보는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옷을 입는 인류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 증인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고 현재를 통해 과거를 깨달아 알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한자의 기원은 길게는 BC 6600-62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

은 벗는 행위와 별 상관이 없다. 이 과일 나무가 벗는 행위와 옷과 상관이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창3:7).

4. 옷의 기원과 복음

진정한 옷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가 임시방편으로 넓적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는 했지만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것이었다. 인류가 맨 처음 입은 진짜 옷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손수 지어 입혀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3:21).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옷을 만드는 광경을 아담과 하와가 보았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다음에 아이들의 옷을 만들거나 자기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 또 다시 짐승을 죽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대속의 의미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옷 입을 때마다 옷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메일: mailforwsc 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라

사라는 신혼 때에는 예쁜 얼굴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은 그야말로 '공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자손을 잊지 못하면 칠거지악으로 여기던 한국의 풍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혼인한지 오래데 아이가 도무지 들어서지 않으니 사라는 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뜬금없이 잘 살던 곳을 떠나 자손의 번창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믿고서도 황당한 남편을 말리지 못하고 따라나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약점에 잡혀 마마님으로 한 성질부리며 위세할 사라는 남편이 뭐라 하든 그저 순복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누이라고 자신을 방패막이로 비겁하게 생명을 건지려고 해도 조용히 도무지 말도 안되는 남편의 요구에 응해주는 사라입니다.

남편의 말도 되지 않는 처사에도 순복하는 사라를 하나님은 시원하게 편들어주셔서 바로에게서 그를 보호해주시고 물질까지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인간 남편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나약함을 보입니다. 하나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막힌 순간에 절묘하게 구해주시고 돌보심을 지니며, 이제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차츰 자신의 믿음으로 불붙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직계 자손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약속은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져도 만나는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나약함을 통해 일으켜 감동케 하심으로 관계를 깊이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막힌 예술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길에 붙은 군식구가 너무도 많은 데 어린 이고 뭐고 자기 것 챙기는 조카 룯가죽들 거느리며 속 끓일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마는 친 자식처럼 돌보는 아브라함인데, 아내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면 그리하기가 쉬웠을까요? 조카 룯을 위해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저를 용감히 구해 오면서도 자기 목숨위해선 두 번이나 자기를 방패막이로 하는 남편입니다. 조카만큼도 사랑을 못 받는다 속이 쓰렸을 만도 하건만...

남편이 두 번씩 자신을 앞세워 남의 남자에게로 보내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보호해주시길 믿으며 남편이 이로 인해 내가 아이를 못 낳아도 나를 당연히 사랑하지 않을까 자위하며 오히려 마음이 당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빼어난 미모로 얼마든지 교만한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사래의 이름을 바꿔주신 대로 열국의 어머니 사라고 그릇을 키워 내십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까요?"라고 자신이 어찌될지 물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자일까요?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고 말씀 그대로 순결하게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연단된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청결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말씀에 약속하신대로 이루어 귀히 쓰이십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필라교협 사이버목회자 조사위 구성

2차 실행위, 6개 지역 부활절새벽연합예배 발표

필라델피아지역한국교회협의회(회장 박동배 목사) 33회 제 2차 실행위원회가 19일 필라한인연합교회(담임 조진모 목사)에서 개최됐다.

만찬에 이은 경건회는 박동배 회장 사회로 서장석 장로(제2부회장)

기도, 손석배 목사 성경봉독, 이대우 직전회장이 "예수님을 깨우자"(막4:35-41)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환난을 두려워 않고 믿음을 적용해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의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축도는 조진모 목사가 했다.

3부 안건 토의에서는 3월 31일 새벽 6시 6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렌스데일: 초대교회 스콘쇼켄/기쁨의교회/ △호샤: 새한교회 △빅스카운티: 빅스카운티교회 △어퍼다비: 필라한인침례

교회 △셀튼: 제일장로교회. 또한 4월 22일(월) 오후 1시30분에는 귀나드 양로원 부활절 예배가 있으며, 이날 안에 교협 수첩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외에 언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버 목회자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날 참빛교회 조상택 목사 가입을 승인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Action for One Korea 출범

기존 정치성 탈피 풀뿌리 통일운동 지향

풀뿌리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액션 포 원코리아'(Action for One Korea 대표 정연진)가 LA에서 본격 출범했다. 기존의 정치적인 통일운동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일상 속에서의 통일운동을 모색하며 한민족 전체 참여를 지향한다.



액션 포 원코리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액션 포 원코리아(이하 원코리아)는 분단 68년 동안 한국인과 해외 동포들이 공감하며 동참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이 없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통일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오는 4월 5일(금) 오후 7시 '작가의 집'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코리아는 지난해부터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서의 동참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LA에 이어 조만간 서울에서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99년부터 일본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미국법정에 소송, 일본사대로 소송을 이끌어 2005년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해 국제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섰던 큰 기여를 했던 정연진 대표는 "통일운동이 어렵고 무거운 이슈로 비취지는 이유 중 하나가 통일방법론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통일운동은

특정한 방법이 아닌 생활 속에서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라며 "이념을 초월해 한민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코리아는 이를 위해 우선 미디어를 활용한 '포스코 코리아 글로벌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한다. 우선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 장진호에서 벌어진 전투를 다룬 제이슨 원 감독의 3D 입체 영화 '혹한의 겨울'을 제작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다. 영화는 '원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제작 중이다.

장소 협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산가족, 실향민 사연, 전쟁의 고통 등을 소재로 한 편지와 UCC 공모전도 단계별로 전개해 나가고 통일 캐릭터 판매 등을 통해 통일기금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문의: www.actiononekorea.org, (213)923-0828 (박준호 기자)

거북이 행보중인 범남가주 이단대책

구원과 박옥수집회 및 십계석국 등 정보력 부족 노출

남가주지역 교회들에 침투하는 이단사이비에 대해 남가주교협(회장 진유철 목사) 등 12개 교계단체가 의기투합해 대책 수립 및 대응을 위해 출범한 범남가주이단대책(이하 이단대책)의 느낌표 행보로 인한 이단피해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4월 7일과 8일 대운타운에서 실시되는 박옥수 집회에 대한 홍보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이단대책 실무진이 모여 박옥수 집회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옥수 집단들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실시 및 집회개최에 대한 정보력 부족과 언론사의 보도가 나간 후 대책수립모임이 이루어진 점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대책이 유명무실한 유행화 된 기관으로 전락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단대책의 느낌표 행보는 핫라인 개설 및 SNS 등을 통한 교계단체 및 교회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

이단옹호언론 등 4개 안건 채택

세이언 제2회 세계대회 6개국 회원 참석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언) 제 2회 세계대회가 지난 4일 오후 6시 하와이 호놀룰루 임파뉴얼한인침례교회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호주 브라질, 독일 일본 미국 등 6개국 세이언 회원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개회예배와 심포지엄, 회무처리, 평신도세미나,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 측은 대표회장에 박형택 목사, 공동대표에 진용식 목사, 사무국장에 이인규 권사를 그대로 유일했으며 미국 측은 대표회장에 김순관 목사, 공동대표에 나선경 목사, 사무국장에 함희희 목사가 선임됐다. 또한 금번 총회에서 신규 이단대책위원회 3명이 가임했다.

한편 회의 진행에 따라 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이단연구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등 각부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회기동안 기자회견 및 다락

방 소위원회, 신사도운동 소위원회, 박윤식 소위원회, 인터콥주시 소위원회 등의 활동보고가 있었으며 금번 대회에서 4개의 안건을 채택, 통과시켰으며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비방과 인신공격 등을 사하지 않고 있는 미주크리스천월드(비행인 강선만)는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다. ▲각 지역마다 비전스쿨로 인하여 교회가 내분이 생기고 있는 인터콥은 사안이 시급한지라 우선 성명서를 발표하고, 곧 이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브라질과 미국 등의 각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 '돌나라 박명호'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해 건전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세이언 멤버나 세이언에 대한 동영상이 및 비방 글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고소를 포함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세이언)

기자의 눈

시대는 변했는데 언어선택은 식민지시대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이 이루어진지 70년이 가까워오지만 정작 우리주변에는 식민

지시대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식민지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먼저 구한말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라는 명칭 대신 사용되는 '민비'를 들 수 있다. 민비는 명성황후라는 조선의 국모를 지칭하는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또한 '한일합방'이라는 용어 역시 '한일 강제병합'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 그 외에 '조선'이라

는 명칭 대신 주로 사용되어온 '이조'라는 표현은 최근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이조'라는 명칭은 타운 내에 운영되는 각종 음식점과 식품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시대 강제 징집되어奮斗한 나이에 성노예로 팔려갔던 분들을 지칭하는 '중군위안부' 역시 '강제적 성노예'로 명칭이 변경해서 불려야 한

다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라는 말에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 참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정신대' 역시 일본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란 의미이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대체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100여년 전 하와이를 통해 미국에 발을 들여놓은 우리선조들은 그동안 조국을 위해 지도자를 양성

하기도 했으며 조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인교회는 과거 미래를 준비해온 것을 볼 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교계가 앞장서 식민지시대의 잔재인 이러한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전환시키는 운동이 시급하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천희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천희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일예배: 오후 9:0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순복음인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30(월-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전 11:30 7부예배: 저녁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수, 수)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45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6:00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벤딕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정택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20대대학부: 오전 10:00(월-토) 유치: 유년부: 오전 10:0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00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허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큰루터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주일)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월/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월/영)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템파라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4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임직감사예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부활절인 3월 31일(주) 오후 6시에 열린다. 장로장립 7명, 명예장로 1명, 안수집사 2명, 권사취임 9명 등 총 19명이 임직한다.
▲문의: (718)461-7835

새소망 합창단 창단예배

새소망 합창단(New Hope Choir, 지휘 조공자 전도사) 창단예배가 4월 4일(목) 오후 7시30분 새누리장로교회(담임 김형석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기독교TV(KCTS TV) 영상선교방송이 후원하는 합창단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새누리장로교회에서 연습한다.
▲문의: (718)219-1399/조공자, (646)915-6034/장효중

이영훈 목사 초청 축복성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초청 축복성회가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가 4월 2일(화) 오후 8시에 열린다.
▲문의: (718)359-0166

곽상희 권사 출판기념회

시인 곽상희 권사(프라이미스교회)의 제 7집 "고통이여 너를 안는다" 출판기념회가 "시와 음악으로 여는 밤" 주제로 4월 11일(목) 저녁 7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다. 미동부민권협회(회장 이진구)와 국제PEN 한국본부 미동부지역위원회(회장 장석렬)가 주최한다. 회비는 50달러이며 만찬과 책이 증정된다.
▲문의: (646)283-5658

파워 관계전도 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가 주관하는 '파워 관계전도' 세미나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뉴욕은 4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뉴저지는 4일(목) 뉴저지벨리교회(담임 정성만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강사는 송기배 목사(가정사랑학교 대표)로 실제적인 지역 복음화 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문의: (917)669-0461

뉴욕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정 확정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훈 목사)가 주최하는 2013년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 25일 열린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준비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준비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정발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천 목사)가 지난 20일 소망교회에서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준비모임을 갖고 예배 장소와 설교자 등을 발표했다. 총 13개 지역/장소/설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지역/뉴저지하베스트교회/정철웅 목사 △2지역/뉴저지만나교회/유재도 목사 △3지역/구세군인글우드한인교회/이우용 목사 △4지역/새샘교회/남봉우 목사 △5지역/뉴저지펠릭한인교회/한효동 목사 △6지역/뉴저지성안교회/정병일 목사 △7-8지역/필그림교회/이신구 목사 △9지역/사랑의글로벌전교회/윤석기 목사 △10지역/뉴저지안디옥교회/권영배 목사 △11-13지역/갈보리교회/김재권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비위양장 마지막 모임에서는 그동안 준비 진행사항 점검과 교협 감사 헌금봉투 등이 배부됐다. 확정된 구역별 장소와 설교자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뉴욕동양제일교회/윤중훈 목사 △우드사이드1/뉴욕어린양교회/방지각 목사 △우드사이드2/뉴욕초대교회/김석중 목사 △서니사이드/뉴욕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 △엘름허스트/퀸즈한인교회/이규식 목사 △플러싱1/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 △플러싱2/뉴욕충신교회/박춘수 목사 △플러싱3/뉴욕충신교회/문경환 목사 △플러싱4/행복한교회/김영철 목사 △플러싱5/한인구세군교회/이상정 사관 △플러싱6/프라이미스교회/허연행 목사 △플러싱7/대한국회/김진 목사 △칼리지포인트/뉴욕수정교회/임재홍 목사 △프레시 메도우/뉴욕천성장로교회/김홍석 목사 △베이스사이드1/뉴욕신광교회/주영광 목사 △베이스사이드2/선한목자교회/지인식 목사 △리틀넥/뉴욕중부교회/양민석 목사 △웨체스터/웨체스터 한빛교회/노성보 목사 △스테튼아일랜드/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김성권 목사 △맨해튼/메트로폴리탄연합감리교회/김의승 목사 △부르클린/브루클린제일교회/최병철 목사 △브롱스/뉴욕베델교회/김승배 목사 △롱아일랜드1/참사랑교회/은희곤 목사 △롱아일랜드2/뉴욕에일장로교회/김석형 목사 △롱아일랜드3/뉴욕로즐린한인교회/이광희 목사 △롱아일랜드4/뉴욕성서교회/임영건 목사.
(유원정 기자)



KCBN 문석진 목사 사장취임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CBN 문석진 목사 사장취임예배 선교복음방송국 사명 감당하도록 후원 당부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문석진 목사 사장취임예배가 지난 20일 프라이미스교회 채플실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22개월 동안 사장대행을 맡은 문석진 목사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문석진 목사는 "방송경영은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한다"며 "25살 된 이 허약한 청년이 땅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선교복음 방송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1부 예배는 이봉삼 목사 인도로 기도 성경봉독 윤숙현 목사, 특송 설교 김종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훈 뉴욕교협회장은 "다스리게 하였더라" (창 41:37-43)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말씀이 기근 든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KCBN을 문석진 목사에게 허락하셔서 다스리게 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히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2부 취임식은 박마이클 목사(KCBN 이사) 인도로 신임 문석진 사장 소개, 취임패 증정, 취임기도 황동익 목사, 축사 남승 지인식 목사, 권민 최예식 목사(뉴욕목사회장), 축사 손세주 총영사(장병원 동포영사 대독), 박상천 뉴저지교협회장, 문석호 KCTS이사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영상을 통해 이대연 장로(뉴욕청소년센터 이사장), 손성대 장로(뉴욕장로성가단장), 박상원 목사(뉴욕나눔의집 지도목사), 김은경(무지개의 집 사무총장), 이창남 목사(뉴욕목회자축구단장), 양창원(뉴욕탁구협회 회장), 박영표 목사(한국요양원 원목), 김상철 목사(파이오니아21 대표)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그레이스 맨 연방하원의원, 론 김 주하원의원, 피터구 시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문석진 사장에게 각각 감사장을 전달했다.
KCBN 총장단의 특송과 KCBN 소개 홍보영상 상영후 황영진 목사(선교이사)의 헌금기도, 김귀만 목사(뉴저지우리교회)의 헌금특주, 윤세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재홍 목사(이사)가 오찬기도를 드렸다.
(유원정 기자)

"공활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21일 뉴욕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명 목사 인도로 기도 최창섭 목사, 설교 박성원 목사, 축도 오태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성원 목사는 "공활히 여기는 자의 꿈"(마5: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자신이 나눔 사역을 하게 된 경로를 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는다"며, "공활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삼급 받는 합당한 일"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박진하 회장 사회로 개회기도 후 시작돼 유상열 사무총장이 회무보고를 했다. 내용은 △비영리 단체등록의 빠른 허가를 위해 기도를 당부하고 △사채 홍보물을 웹사이트에 올려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했으며 △8월 페루 사랑의 집짓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신임회장에 김용해 목사 제 11회 정기총회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이성철 목사)가 지난 22일 제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용해 목사(뉴욕제일감리교회 원로)를 선임했다.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성철 목사의 사회로 정익수 목사 대표기도, 지인식 목사 부부 특별찬양, 정관호 목사 설교,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축사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정관호 목사는 "영화의 면류관"(잠16:31) 제목의 설교에서 "시간적으로 은퇴한 원로목사이기보다 많은 후배들의 신앙과 덕망, 인격 등 존경 받는 원로목사가 진정한 원로 목사라 생각한다. 그것이 이 땅에 영화의 면류관이라며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분, 교계의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원로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훈 목사는 "은퇴 후에도 결실을 맺고 진애이 흥성하며 빛이 청정한 원로 목회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어디에서든지 여호와와의 정직을 들어낼 수 있는 뉴욕한인원로목사회가 되어달라"고 축사했다.
원로목사회는 지난 10회기 동안 4회의 임원회와 임원 분과위원 연석회의 1회, 월례예배 10회(특강 포함), 순례자 출판 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고 총무보고에서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선교후원과 교회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광고 디자인업체

이배너라인

수준높은 전문가의 차별화된 **디자인, 가격, 서비스**
동부에서 가장 저렴한 교회 배너 전문업체
e배너라인과 함께 하시면 세련되고
은혜로운 색다른 교회 디자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첫 배너 주문시 모든 분께 **10%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 **10Point** 적립시 (배너 1개 주문시 1Point)
\$100 상당의 배너를 **Free**로 제작해 드립니다.
- **2개 이상 주문시 미 전역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교회 배너 현수막, 웨딩 돌잔치, 브로마이드 제작, 각종 간판, X-Y배너, 차량 랩핑(글자 커팅), 롤브라인트, 대형 광고판, 포스터,브로셔,전단지 디자인

ULTRA HIGH RESOLUTION,
PHOTO QUALITY
FULL COLOR PRINTING

동부 최대 최신형전문 대규모 출력장비 보유

홈페이지 | www.nyeb.com 홈페이지로 오시면 더 많은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현수막전문업체

고퀄리티 초대형 그래픽 출력장비 보유,
편리한 주문, 저렴한 가격, 신속한 제작
인터넷(이메일)으로 주문하고 완료 후
미국내 어디든지 1주일내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차별화된 신속한 서비스

**Trade Shows
Banner Stand
Apparel
Outdoor Banners
Backlit Graphics
Water-Resistant Signs
Vehicle Graphics
Die-Cut Signs
Cut-Vinyl Signs
Decals
Outdoor Signs**

이배너라인
E-BannerLine
www.nyEBL.com

TEL | 718-631-7969, 718-939-2030 FAX | 718-428-4671
이메일 | nybanner@gmail.com 홈페이지 | www.nyeb.com
주소 | 15-58 127ST. CollegePoint NY 11356

선교사, 목회자, 독립운동가로 불꽃같은 삶 제1회 미주지역(LA)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포럼

한미동포재단(이사장 임승춘)이 주최하고 손정도목사기념학술포럼(위원장 최재영 목사)이 주관하는 제1회 미주지역(LA)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포럼이 '민족화합과 통일을 향한 동포사회의 새로운 이슈와 비전: 남북이 존경하는 손정도 목사의 생애를 통한 분단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렸다.

토요일 오전10시부터 LA한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둘째 날 강연의 제1강의 "손정도 목사 다큐멘터리 동영상 상영", 제2강의 "목회자와 선교사로서의 손정도", 제3강의 "독립운동가와 항일투사로서의 손정도, 제4강의 6.25 전쟁과 분단의 현상에서 바라보는 손정도 제목의 강이 후 참석자의 종합 질의 &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재영 목사는 "손정도 목사는 50평생 불꽃같은



제1회 미주지역(LA)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포럼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생애를 살고 갔다. 감리교 최초 만주선교사, 목회자, 항일투사, 독립운동가로 지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손정도 목사의 철학은 '갈레철학'이라며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신은 굶어갈 일을 도맡아 하였고 결국 자신은 이름 없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는 낮아진 삶을 사셨다. 손 목사는 일제 항거하면서도 철저히 정치적이지 않은 목회자로 정체성 지켰다.

LA 다운타운에 1\$레스토랑 연다

월드쉐어, 홈리스 사역 새 롤 모델 제시

LA다운타운에 홈리스들이 마음을 모아 '1\$(달러) 레스토랑'을 오픈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홈리스 사역단체인 월드쉐어(대표 양운 목사)가 홈리스들과 함께 다운타운 5가와 샌페드로가 만나는 지점에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 지역은 홈리스들이 많은 지역으로 무숙자 선교단체들이 거리선교를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월드쉐어의 김희기 팀장은 "홈리스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중 하나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오픈을 위해 기도하며 장소를 모색해왔다"고 밝히며 "마침 좋은 자리가 생겼고 저희 취지를 건물 주인이 듣고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했다.

1\$ 레스토랑이 주는 의미는 상징적이다.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1\$보다 훨씬 비싸지만 1\$에 제공하는 것은 음식을 파는 자들도 단지 로망처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정성껏 제공한 음식을 돈을 받고 팔수 있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음식을 사서 먹는 대부분의 무숙자들 역시 자신들이 거리에서 모

1915년 제6대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 시 유관순 열사에게 항일 의식과 애국정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손정도 목사는 현순, 안창호, 김구, 이승만 등과 함께 상해임시정부 설립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의정원 의장(국회의장), 국무위원(교통부장관), 대한적십자회장, 노병회, 의용단, 대한교육회, 인성학교교장 등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해 맹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림에 돌아와서는 안창호 선생과 함께 농민운동사업과 항일운동을 열정적으로 병행하다 1931년 2월29일 중국길림의 한 병원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한편 첫날강의는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으며 손정도 목사 다큐멘터리 동영상과 학술원 사업보고, 그리고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일과 손원태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겨레사랑 창립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 의약품과 함께 복음 필요"

미주겨레사랑 창립감사예배, 미주이사장에 이종용 목사

미주겨레사랑(회장 임덕순 장로) 창립감사예배가 21일 오후 6시30분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먼저 만찬이 있은 후 미주이사장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의 인사말, 창립예배,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고석찬 목사(남가주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예배는 남성수 목사(OC한인교회 담임)가 대표기도를, 박정진 장로(은혜한인교회)가 성경봉독을,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롬5:6-8)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한기형 목사(나성동산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김영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게 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다"며 "이 운동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이른 아침 바닷가에 해무가 밀려오듯 하나님사랑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북한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에 이어 시작된 축하행사는 CTS 합창단과 장로성가대가 특별찬양을 했으며 미주겨레사랑 자문위원인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와 김영길 총장(한동대학교) 격려사, 민경업 목사(OC교회합회)와 이동원 목사(지구교회 원로)가 축사를, 미주겨레사랑 영상소개, 남가주이사장 한중수 목사(얼바인침례교회 담임)가 사역소개, 권영대 교수 특별찬양, 임덕순 장로의 인사로 이어졌다.

임덕순 장로는 인사말에서 "북한은 현재 에너지 식량 의약품 등과 함께 복음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려 한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KCCD 후원이사회 발족 리셉션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 협회(KCCD 회장 임혜민)에서는 후원이사회를 발족하는 첫모임을 16일 저녁 6시 이사장 박종대 목사의 자택에서 30여명이 참석해 리셉션을 가졌다. 이날 변영의 목사, 신승훈 목사, 오오한 목사, 박남수 장로, 임수석, 박만서, 신명철, 윤동주, 장영,

은 돈을 의미 없이 낭비하기보다는 1\$레스토랑을 통해 홈리스가 되기 전의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곳에서 일하게 될 홈리스들은 말끔한 복장을 차려 입고, 이곳을 사회로의 재진출 발판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월드쉐어의 1\$레스토랑은 1년 전 홈리스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센터에서 시작된 기도모임을 통해 시작됐다. 스키드로 찬양밴드까지 결성됐고, 이를 통해 많은 홈리스들이 회개하고 전도된 사례들이 발생했다. 홈리스들이 매일 1달러씩 모아서 렌트를 내고 있는, 찬양연습실인 기도센터가 지금의 사역공간 바로 옆에 생겨나게 됐다. 홈리스들에게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겨났으며 그것이 바로 식당이었다.

1\$레스토랑은 전문 요리사를 고용할 생각이고, 합당한 보수도 지급할 예정이다.

월드쉐어에서는 이와 관련 좋은 아이디어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문의로는 김희기 팀장 (213-435-3489)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공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형 목사)는 뮤지컬 'Eternal Life' 공연을 4월 5일(금) 저녁 7시30분, 6일(토) 저녁 8시, 7일(주) 저녁 6시30분에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인사회 자체 제작 뮤지컬 규모로는 가장 큰 스케일이며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티켓은 10달러이며 각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714)768-3747 줄리김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제히

남가주지역 2013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부활절인 오는 31일(주) 일제히 실시된다.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속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형 목사)를 비롯 남가주지역 9군데 교회에서 나눠 드려지게 된다. 다음은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제히 장소.

지역	장소	시간	설교자
로스앤젤레스	LA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	5:30	민경업 목사
LA동부	선한침례교회(송병주 목사)	5:30	김민섭 목사
밸리	은혜와평강교회(곽덕근 목사)	5:30	류재덕 목사
벤츄라, 옥스나드	카미리오KUMC(아상영 목사)	6:00	조민 목사
샌버나디노카운티	창대교회(이준준 목사)	6:00	정충재 목사
사우스베이	토렌스제일장로교회(이종민 목사)	5:30	구진모 목사
세리토스	세리토스OMC(석태운 목사)	5:30	이상명 목사
오렌지카운티	은혜한인교회(한기형 목사)	5:30	진유철 목사
인랜드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5:30	박종길 목사

제 51기 C.W.M 전도훈련세미나 시작

선교부 주관, 창립 60주년기념, 일셔이벨극장에서

제 51기 C.W.M(Christ Witness Mission) 전도훈련세미나가 오는 4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3주 동안 다운타운에 소재한 실로암교회(담임 조창훈 목사)에서 진행된다.

C.W.M은 1989년 LA에 있는 실로암교회에서 시작된 전도훈련 기관으로 지금은 인종과 지역, 언어와 세대, 교파를 초월해 전도훈련을 하고 있으며 각 나라 말로 훈련반을 제작 보급하고 지역마다 전도반을 교회마다 전도단을 세워 나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비영리단체이다.

C.W.M은 그동안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

아마존,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교회와 신학교, 단체에서 지도자 및 평신도 전도훈련 세미나를 갖고 전도단을 세웠으며 현재 한국과 태국에 C.W.M지부가 있다.

본 전도훈련 세미나는 조복섭 사모와 이은희 목사가 강사로 서며 회비는 50달러(교재, 전도지, 자료 및 식사 포함). 교역자나 사모는 물론 평신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단, 4인이상 등록시 수강료 50% 할인 혜택을 준다. 자세한 문의는 boksupcho@gmail.com 또는 (562)480-6975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KCCD 재단 후원이사 리셉션이 이사장 박종대 목사 자택에서 열렸다

<p>세계로번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 Fax: (714)521-4638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요예배: 오후 11: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찬양)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6:30 주요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7:0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수요예배: 오후 7:00 (KCCD-한국교회개발)</p>	<p>대동성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 예배: 오후 7:30</p>	<p>등문교회 담임목사: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등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며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p>	<p>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비전: 13세부터 오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찬양부흥): 오후 1:45 새벽기도: 오전 6:00</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양)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찬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벤크버릴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6:30(토)</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안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안학부)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요예배: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p>	<p>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7:00(월-토)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p>	<p>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0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15(월, 금)</p>	<p>세계성당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4: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안디옥성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11:00</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p>	<p>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안학부)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요예배: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형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토요영양예배: 8:55(월-토) 24시간</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수요찬양: 오후 7:30</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후 1:15(영아) 주일예배: 오후 3:00(찬양)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토렌스주요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3:00(찬양)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2013 부활절은 나눔·섬김잔치 한마당”

전국 교회·선교단체 복음전과 행사 잇달아

오는 31일 부활절을 맞아 전국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성도들은 기도회 참석과 불우 이웃 돕기, 헌혈과 장기기증서약 등 절제와 경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와 만남을 준비 중이다.

(새하이패밀리는 30일 경기도 양평 계관교회 마당에서 다문화가족과 소아암 환우 등을 초청해 ‘부활절나무’(Easter Tree) 등식등을 갖는다. 부활절나무는 달걀 크기의 전 등 520개로 꾸며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용된 목재로 알려진 꽃산딸나무로 제작됐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원 300여명은 다음달 4일 서울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를 갖는다. 다문화가족 150여명과 함께 부활절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며 떡과 과일, 계란 등을 제공하는 위로잔치를 연다.

미안마 난민을 돕고 있는 비선선교회는 지난 22일부터 서울 용산구

중 캠페인을 벌인다. 안양시기독교연합회 600여 교회 500여 성도들은 이날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에 동참하며 예수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긴다. 안양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받받아 한국교회 부흥과 연합의 역사에 밀거름이 되었다고 다짐하는 ‘부활절 비전 선언문’을 발표한다. 안양시부활절연합회에 준비위원장 홍성국 평촌감리교회 목사는 “전 가족이 참여하는 예배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를 갖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와 지역교회들은 31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활절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조찬기도회를 최근 가졌다. 기도회에선 교회연합과 성화, 소외 이웃 등 4개의 기도제목을 놓고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서규석 예담교회 목사는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부활절연합예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 캠페인을 벌인다. 안양시기독교연합회 600여 교회 500여 성도들은 이날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에 동참하며 예수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긴다. 안양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받받아 한국교회 부흥과 연합의 역사에 밀거름이 되었다고 다짐하는 ‘부활절 비전 선언문’을 발표한다. 안양시부활절연합회에 준비위원장 홍성국 평촌감리교회 목사는 “전 가족이 참여하는 예배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를 갖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와 지역교회들은 31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활절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조찬기도회를 최근 가졌다. 기도회에선 교회연합과 성화, 소외 이웃 등 4개의 기도제목을 놓고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서규석 예담교회 목사는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부활절연합예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시대 궁극적 희망 예수님 부활 은총 온누리에...”

교단·연합기관 부활절 메시지 선포 일제히

주요 교단과 교회연합기관·단체들은 26일 일제히 부활절 메시지를 내고 이 시대에 궁극적인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회 곳곳에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부활절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기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국민대통합이 이뤄지기를 소망했다. 한기총 총재 겸 대표회장 “한국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가야 할 땅 끝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인 것이며 북반 동포와 탈북자들, 제3세계 형제자매들과도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는 김영주 총무 명의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현실이 아무리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보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하는 것”

이라며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하며, 성장주의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연대함으로써 십자가의 현장을 분명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박위근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이 공존하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메신저가 되어 할 것”이라며 “종교인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 오정호 대표는 “공허한 입술만의 고백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물로 주님의 제단에 올려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은 오직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사랑을 이긴 주님의 능력을 입고 연합과 일

치, 섬김과 나눔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축원했다.

한국교회연회는 부활의 은총에 힘입어 한국교회가 삼기일전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연회는 “교회에 대한 공격과 이단의 발흥 등 현재 한국교회는 내외외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선교 초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희망이 된 복음의 역사(史)를 이제 한국교회에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장통합 손달일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눈에 보이는 세상권력과 물질 추구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한다”면서 “이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김기택 임시감회장은 “인간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적의 새 역사를 만들 어갈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믿는다”며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사 학위가 뭐기에” 논문표절 사과

오정현 목사 기도원에서 동영상 보내

박사학위 논문표절로 6개월 동안 실교를 중단한 오정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24일 주일 예배에서 동영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 목사는 현재 기도원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히면서 “저의 박사학위 논문표절로 인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친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사학위가 무엇이기에 저의 잘못에 스스로 눈감아 버렸던 것 아닌지”라며 “성도들을 시험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의심하는 일을 생גיע 했음을 통탄한다”고 말했다.

예배 중에 이 영상이 상영되자 일부는 고함을 치며 비난했으나, 영상

이 끝날 때는 박사가 나왔다.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롬대학에 제출한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난해 교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교회는 조사위를 구성, 지난 1월까지 7개월여 조사한 결과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오 목사는 조사위에 “양심과 명예를 걸고 내가 쓴 논문을 밝힌다”며 “만약 추후라도 논문 대필이나 표절 등 그 어떤 부정직한 증거가 나온다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인 지난 2월 10일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사임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며 앞뒤를 돌리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건축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을 하면 저의 논문문제는 덮여 주겠다고 하면서 48시간 내에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고직간 간사는 논문표절이 분명한 상황에서 “논문표절과 대필 의혹으로 사임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무리한 건축이 수 등으로 사임하는 것이 오 목사의 재기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이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지난 17일 오 목사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결론지었다. 오 목사는 자신해서 6개월 동안 실교를 중단하고 사제비의 30%를 받지 않기로 했다.

“차별금지법안 폐기하라!”

교계·시민단체 700여명 국민대회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소속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 700여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동 민주통합당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영등포 거리를 행진했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와 1000만명 국민서명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

려된다.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있었으나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민주장 김한길·최원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와 사상,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를 담고 있다.

부산에 초기 선교사 3인 표지석 세워

알렌 등 초기 선교사 3인이 한국 땅에 첫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부산에 세워진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대표회장 윤종남 목사)는 20일 “부산은 한국 선교를 위해 온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라며 “부산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간직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부산 중구경과 공동으로 이들 선교사의 입국 표지석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지석 제막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부산 광복동 입구의 광복 쉼터

(7번국도 기점)에서 열린다. 가로 세로 각각 70cm, 55cm인 표지석 앞면에는 ‘조선 선교의 첫 기차지 부산’이라는 문구와 함께 3명의 선교사 사진 등이 새겨진다. 앞면과 뒷면에는 이들 선교사의 약력 등이 영문과 한글로 소개될 예정이다.

부기총 표지석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웅 목사는 “부산은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던 시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려 첫발을 디딘 기차지였다”면서 “입국 표지석 건립은 이들 선교사의 첫 기차지가 인천(제물포)으로 잘못 알

려진 것을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신교사(백낙준 지음) 등 주요 문헌에 따르면 알렌 선교사의 경우 1884년 9월 14일(또는 9월 22일) 제물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렌의 일기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떠나 배편(난징호)으로 9월 14일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부산은 완전히 왜색(倭色) 도시이다...로 시작하는 일기에는 그가 부산에 잠시 머물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알렌이 제물포에 도착한 날은 일주일 뒤인 9월 20일이다.

기하성 ‘교단 통합 및 60주년 행사준비’ 기도회

조용기 목사 ‘임시통합총회장’ 추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과 기하성(총회장 박성배 목사) 교단 통합을 위한 임시통합총회장에 추대됐다.

양 교단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단통합 및 교단 6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갖고 양 교단 총체인 조 목사에게 전권을 맡겨 교단의 숙원사업인 교단 통합을 성사시키기로 했다. 기도회에 앞서 양 교단은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통합을 위해 한 마음으로 통합 총회장을 통수하겠다’는 헌법 부칙조항을 통과시키고 조 목사를 임시통합총회장에 추대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양 교단은 올해 교단 창립 60주년 행

사를 조 목사를 중심으로 치르고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행정행위에 나서게 됐다.

기도회에서 이영훈 박성배 총회장은 강단에 나란히 서서 “만장일치로 조 목사를 통합총회장에 추대했다”고 발표했으며, 양 교단 소속 850여명의 총대들은 기립박수로 조 목사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다.

‘기하성 교단 통합에 즈음하여’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조 목사는 인본주의적 사조가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 분열을 거듭하는 한국교계 현실에서 교회와 교단이 하나 될 때 남북통일과 세계교회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기하성은 60년 만에 한국교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으며 그 결과 세계 기독교사에 있어 획기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서 “안타깝게도 교단분열의 아픔을 겪었지만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절대 잃지 않고 교단 통합을 성취해 나간다면 한국 교회와 교단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최근 들어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교회와 교단, 연합기관이 분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인간의 이해관계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분열의 아픔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 사랑으로 과거를 용서하고 상처를 아무만져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기도회에는 박정근 박광수 박종선 최성규 정원희 장희열 이재창 조석록 목사 등 전 총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 교단은 5월22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단6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490-7000, Fax. (02)490-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org Tel. (02)31-984-2939, Fax. (0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면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2)522-4834 500-170 광교역사 북구 문림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상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인회)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244-9000, Fax. (02)244-9099 서울시 강동구 길동3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장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8,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인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3: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Tel. (02)2646-3181~3, (0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근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 Tel. (02)2643-8534~9,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17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 Tel. (02)51-740-4500, 456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1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02)2-568-0191, Fax. (02)32-6882-2738 인천시 서구 동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7)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의왕로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2-842-1968, 새벽(0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도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시 기흥구 대왕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1)210-5500, Fax. (051)210-5510 (041-370)영남시 상리동 통일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2: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강북구 강릉로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새벽 4: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안동 448-23	청주주요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새벽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주일3부예배: 저녁 9:00 주일4부예배: 오전 2:00 주일5부예배: 오전 7:40 유. 초.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2,3,부.새벽시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제한된 접근국가의 신학교육 이슈 (4)

(Theological Education Issues in Restricted Access Nations)

노봉린 박사
(Concordia Seminary, Th.D.)



1) 제한된 접근국가 밖에서의 신학교육 북미와 유럽을 제외하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중국어로 중국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1) 필리핀: Bible Seminary of the Philippines (Dr. Joseph Shao - 약 120명)

2) 싱가포르: Singapore Bible College, Trinity Theological College

3) 말레이시아: Malaysia Bible Seminary (Klang)

4) 홍콩: Chin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hinese Alliance Seminary

5) 대만: 중화복음신학교(대북)

6) 한국: 수원중신학 (이규왕 목사), 고신대학(김복경 박사), CTSS(이요한 박사)

특별하고 영성있는 중국신학생들을 골라서 장래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속히 마련해줘야 한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신학생 수천명이 북미와 유럽의 신학교에서 공부해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육에 종사한 것과 같이 수만명의 중국신학생들을 외국에서 교육시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자국의 신학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제한된 접근국가 내에서의 신학교육

(1) 필자는 중국 밖에 있는 중국신학자들에게 AGST-Chinese를 창설하도록 권면했다. 그 이유는 AGST-Chinese는 중국내 교회지도자들을 연장신학과 온라인 신학교육을 통해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학교도 중

리한 자료들을 구입, 깊이 연구해 다양한 중국교회 상황에 적용되는 TEE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며 TEE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TEE 연장신학교육은 학생들의 자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교과서와 교수 진영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자세히 계획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과목 탈락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경험에 의하면 TEE프로그램을 신학교와 연결시켜 신학교의 연장신학교가 주동이 되어 긴밀히 주관해 TEE과목을 제공해야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제한된 접근국가 신학교에 선교학 창설의 필요

세계복음화와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중동지역,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복음화는 중국교회와 인도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슬람국가들은 중국의 8억의 기독교인과 인도의 5억의 기독교인의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교회와 인도교회의 선교운동은 무슬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1) 중국신학교 커리큘럼에 선교학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선교의 비전이 있어야 교인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신학교의 선교과목을 강조하기 위하여 ATA는 인가 신청하는 신학교에 선교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도록 강조한다.

2) 한국신교사들이 운영하는 중국신학교에서 선교학 전공을 설치하고 선교학 학위를 수여하며 선교 전문인론과 선교사를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슬람 국가 복음화는 중국교회와 인도교회 기독교인 및 중국신학교 커리큘럼에 선교학 포함 한국 선교열정 교육

국신학교와 협조해 AGST-Chinese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현재 북미와 아시아의 수많은 신학교들이 중국내에서 그들의 연장신학을 통해 중국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 수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ATA가 2012년 1월 중국에 있는 신학교들 중 본부가 중국 외에 있을 경우 그 신학교들을 인가 심사할 수 있도록 결정된 후 가정교회신학교들이 하나 둘 자체를 밝히며 ATA Accreditation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ATA Accreditation은 현재 아시아의 140개 신학교에 인가를 수여했으며 ATESEA(동남아시아)와 Serampore College(인도)를 통해 인가받은 신학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으며 결과로 아시아에서 ATA 신학교육운동이 최대로 알려지게 됐다. ATA지도자들도 현재 한국신교사들이 경영하고 있는 중국신학교를 한국에서 ATA인가 심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도와주기를 바란다.

3) TEE를 통한 평신도 제자훈련

현재 중국에 8,000만명이 넘는 개신교인이 있다고 한다. 평신도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제자훈련은 중국신교의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TEE연장신학이다. TEE는 중국교회만 아니라 반 기독교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Restricted Access Nations의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국교회를 위한 장래의 한국신교 전략은 TEE를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TEE자료가 아시아의 영어권 국가(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자료들은 네 개의 레벨로 돼있다. 한국 신교사들은 이

3) 중국신학생이 선교학위를 주는 한국신학교에서 선교학 학위를 받게 하며 한국교회 선교활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4) 24,000명이 넘는 한국신교사를 170개국에 파송한 한국교회의 선교열정을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줘야 한다.

결론

중국은 한국의 이웃이다. 중국민족과 한국민족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이웃이다. 6.25전쟁 이후 한국교회가 놀라운 교회성장을 경험한 것 같이 현재 중국교회도 놀라운 교회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서로 필요한 상태이다.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로부터 배울 것도 많이 있고 또한 중국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배울 것도 많이 있다.

특별히 한국 신학교육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한국신교사들은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육과 교회지도자 양성에 종사하고 있다. 종교자유가 제한된 중국에서 정부감시 하에서 신학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가끔 중국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한다.

이번 중국교회신학교육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가 중국신학교육을 위해 새로운 선교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 교회와 신학교들이 새롭게 ATA의 활동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서 한국 신학자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신학교육 발전과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인/터/뷰

감사한인교회 목회30주년 맞은 김영길 목사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상 어둠 비추는 교회로”

오렌지카운티 부에나 파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 올해 30주년을 맞아 이민교회에 모범적인 교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교회의 병폐중 하나인 목회자와 당회원간의 갈등이 없다는 것, 더 나아가 모든 당회원들이 형제처럼 하나가 돼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담임 김영길 목사는 이러한 것들이 30년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많은 이민교회가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식을 접하게 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교회는 장로님들이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30년이란 세월을 지나 이제 청년의 시기를 맞이해 OC지역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선 감사

고 싶습니다.” 김 목사는 위터에 있을 때 감사한인교회의 사역이 여기가 지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 기도할때마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입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던 8월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왜 뜨거운데 나와 있는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교실이 없어서 나와있다고 대답했다.

“어른들은 시원한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뜨거운 음식으로 들렸으며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순복음중앙교회이며 이는 그가 도미 후 개척한 감사한인교회의 모체이기도 하다.

“개척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83년 3월17일 미국 하나님 의 성회에서 안수를 받고 20일

목사와 당회 한마음으로 교회 원동력 마련 4개 형제교회 개척,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

한인교회. 그러나 김영길 목사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 지금의 자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말한다.

“저는 원래 비전도 없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그저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어머니께서 신학대학을 가라고 권면하셨어요. 당신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덕분일까. 청년 김영길은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한신대에 입학하게 됐다. 한신을 졸업하고 13년째 되던 해 자신의 주변에 교인들이 모여 들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

“미국으로 건너와 살고 있었는데 자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왜 저에게 교인들이 모여들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아니며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5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와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회의 비전도 없었던 저에게는 매우 큰 고만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게 됐어요.”

LA 한인타운에 있는 노턴과 6가에 위치한 루터안교회를 빌려 시작한 그는 교회가 부흥돼 15마일 떨어진 다우니로 교회를 이전하게 됐다. 교인들은 모두 따라왔으며 2년 후에는 위터에서의 벨리뷰와 레핑웰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미국교회를 구입하고 89년 2월 이전했다. 그리고 92년 교회이름을 감사한인교회로 개명했다.

“당시 감사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이름은 저희가 최초였어요. 수많은 백인교회, 라티노교회는 물론 한인교회들도 감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감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교회는 점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갔습니다.”

위터에서 시절 감사한인교회는 수적인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성숙해 교회재정의 30%가 선교비로 사용됐으며 해마다 단기 선교도 갔다. 아프가니스탄 쿤드사에 고아원을 세우고 한국에서 파송된 2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게 됐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선교의 문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다면 다시 헌신하

위한 부에나파의 별관을 발견하게 됐으며 교회건축 가능 여부를 부에나파 시에 의뢰하게 되고 교회건축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현 위치에 교실 27개를 갖춘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한인교회는 코로나 감사한인교회, 다아몬드 감사한인교회, 알바인 감사한인교회, 빅토리아 감사한인교회 등 형제교회를 개척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밝혔다.

“30주년을 은혜가운데 지냈습니다. 앞으로 감사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바람은 2세가 자라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교회로 감사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은혜가운데 말씀가운데 걸려서 다음세대는 물론 그다음세대까지 감사교회가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람세우는 하나님, 능력 체험하여 세상 어둠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박준호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수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빠의 선물 (9)

정정숙 박사
(매일리터치 원장)



열매 맺는 죽음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체험과 간증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도 필요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할 발자취,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할 고난 극복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성공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것은 죽음을 통해 열매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웨이 죽음을 일컬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던 것은 '죽음이 크나큰 고통의 끝이며,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열매 맺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열매 맺는 일의 시작'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열매 맺는 죽음을 위하여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위축증(筋萎縮症)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오는 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모리 교수는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 이 두 질문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차 있는 일로 승화시킬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해, 동료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서 크게 낙심합니다. 참석자들은 고인에 대해 덕담을 나누었지만 이미 죽어버린 친구 교수는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은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기로 마음먹고 추운 겨울의 주일 오후에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울고 웃고 그동안 서로 나누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랑을 나누는 감동적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장례식!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리고 또 슬픈 장례식! 멋지고 아름다운 감동의 장례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내가 남편에게 책으로 읽어주기도 하고, 녹음테이프도 남편이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모리 교수의 생애와 죽음을 다룬 작품을 비디오로도 봤습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맞는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이며 값진 죽음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우리 세대, 우리 문화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죽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다음 세대에 보여줄 프로젝트로 여기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리 교수는 헨리 아담스가 "스승은 영원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디서 그 영향이 끝날지 스승 자신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죽음에 대해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줄 수 있는 스승, 혹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종교와 배경과 인종과 문화가 어떻든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 대해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은 얼마나 있습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기적적으로 병든 자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 하는 분위기가 아십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

는 행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고, 역으로 가족들이 환자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를 슬픔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환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나 유언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며칠 동안 하나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는 자의 권리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사기가 아주 저하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환자가 체념 섞인 어투로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하면 '그런 약한 소리 말아요. 아마 우리보다 더 오래 살걸요?'라고 대답한다. 의료진 뿐 아니라 가족들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이 친절이고 효의를 베푸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종류의 '침묵의 공포'는 환자들이 죽을, 특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확신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환자들도 두렵기는 하지만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

남편과 내가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던 데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매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떠났습니다. 다가오는 세대에 부모와 스승 역할을 잘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 나도 남편을 통해 배운 죽음의 교훈을 가지고 스승과 부모 역할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병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나의 고난도 허사이고 간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실체를 알려주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마태복음 25:21)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신교 편지

우크라이나

살롱!
겨울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조금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순간이 일년중 가장 마음이 요동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 소식 때문에 더욱 따뜻한 봄을 더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땅에 더 좋은 일이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동도의 여리고 기도

교회 건물 문제로 인해 수요예배 후에 교회 주위를 돌며 하는 여리고 기도 모습입니다. 곧 끝나겠지 하고 시작한 기도가 벌써 만 6년째 되었습니다. 교회 주위를 세 바퀴 돌면서, 교회 건물,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위해 한 가지씩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해하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며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설령 건물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어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



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르팜을 살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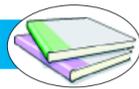
오랫사에서 70킬로 떨어진 조그만 시골 도시 아비도폴에는 고려인 20가정이 살고 있어, 4년 전부터 교회 개척을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100여 명이 되는 고려인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직 이렇다 할만한 열매는 없지만 이제는 가정 대소사에 항상 초대받는 단골손님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위해 한글교실을 시작하기 위해 장소를 찾는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가게를 제공해준 울가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늦동이 아들 아르팜을 가졌답니다. 지난 9월 돌잔치에 참석하여 함께 기뻐한 기억이 채 가시기 전, 아르팜에게 갑자기 머리에 10센티 되는 악성 종양이 생겨 큰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율가는 치료할 병원을 이곳저곳 정진없이 찾아다니고, 주위 사람도 어쩔 줄 몰라 발만 굴리고 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호프집, 과일장사,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온 울가 자매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르팜을 살려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르팜을 통해 아비도폴 고려인들이 잠시라도 생업을 놓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한규 선교사 드림

세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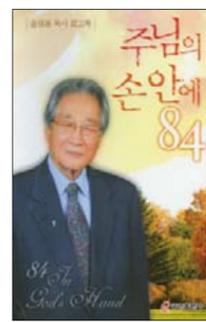


"주님의 손안에 84"

- 운영봉 목사 회고록

50년 사역 이야기로 후배들에게 용기와 도전 줘

운영봉 목사(디트로이트한인연합교회 원로)의 회고록 "주님의 손안에 84"(쿠팰출판사)가 출간됐다. 윤 목사의 지난 50년간의 목회사역이야기와 삶의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엮은 본서에는 이민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지도자상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일민본의 식민지 정착에 반대하는 항일운동과 공산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일에 동참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서서 지난 50년간 주의 종으로 살게 하셨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일에 대한 망각



과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기억의 은사를 주셨다. 가슴 아픈 상처가 되는 일은 잊고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만 골라 기록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본서는 제 1부 '출생-부름받음-수난', 제 2부 '나의 목회 생활', 제 3부 '후배 동역자들에게, 제 4부 '내일의 이민교회를 말한다. 제 5부 '이민 1세인 나의 한영교회, 제 6부 '은퇴란 빛인가?', 제 7부 '주님의 손과 감격스런 일들로 구성된 자신의 출생과 부름 받은 과정 수난의 시간 등을 기록했으며 3부에서는 교인을 치리하는 비결, 교회성장의 원리, 목회자의 새 리더십, 돌봄목회의 원리,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목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사술해 후배 목사들에게 지침돌이 돼주고 있다. 운영봉 목사는 감리교 성화신학교, 뉴욕육군군목학교, 미국 아메리칸대학을 졸업했으며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회를 시무하고 미주 동남부지역 감리사를 역임했다. 책 구입이나 저자에 관한 문의는 (951)242-8484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한국 교회속에 뒤들린 성경운동

신사도 운동이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국교회를 뿌리부터 갱아먹고 있다.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복음은 신비한 체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거짓 부흥을 사모하게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비로 성경론과 무속적 신앙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빠져 있다

진실된 성경운동으로 바른 영성을 노리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성경, 찬송가 각종 기독교서적 전문 취급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미디어,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예의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량 선물용품, 시성/행서,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이중동역기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언급위원, 드레스/정장영복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ible 아를렛 (도매부)

기념때 현금봉투 주보 각종 기념품 주문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소강대상, 강대상, 현금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확 바뀌고 달라진 기법!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장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선구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전문회사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동시 자유로운 바퀴(360도 회전) 용량(17리터당 1톤) 신년특별 유망특대 - 설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Suite 200 L.A., CA 90005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가정 가꾸기(2)

사모의 역할로서 중요한 부분이 또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목회한다고 가정은 전혀 간섭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 전부 맡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즈음엔 목회자 가정의 중요성이 사회에 부각이 됨에 따라 목회자들도 가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가정에 충실한 나머지 성도들을 무시하고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목회자가정이 앞장 서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목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느 것에도 먼저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후 처음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창2: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지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대항하는 것이 정상처럼 되는 때입니다. 이때 부모들의 간섭과 잘못된 교육방법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품을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부모의 품을 떠나기 위한 준비단계이지 아주 떠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부모도 한층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금까지 자녀교육을 잘못시켜온 것을 후회하며 자녀들을 이해하는 훈련단계로서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자녀가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분리는 결혼입니다. 결혼이야말로 이제 신체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한 채 결혼을 하는 부부는 서로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려워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교육으로 독립의 방법을 터득해서 미리 독립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할 자녀들은 어떻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한다 해도 부모들이 잘되지 않아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잘 떠나보내는 것도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옛날 부모님을 시절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르기에 힘이 들어 하루속히 결혼을 서둘러 결혼연령이 20대 초반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할 대상자를 고르기가 한층 어려워지는 시대라 하지만 부모 역시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함께 따라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동시에 결혼기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분리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을 종료하는 단계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이별이 바로 죽음입니다. 가장 큰 충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분리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와 한몸이 되기 위해서 성부이신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외치시던 절규는 인간과 연합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떠남이었습니다. 결혼제도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을 보여

결혼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가정의 원리가 성경적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목회자 가정이 앞장 서야

로다" 이것은 가정의 삼대요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떠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요즈음엔 부모로부터 독립이 잘 되지 않아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아예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네 번에 걸쳐 큰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10개월 동안 자궁 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큰 의무요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됩니다. 진통에 의해 양수의 압력에 의해 떠밀려 내려오는 산도는 좁고 험난합니다. 목숨을 다해 좁은 길을 뚫고 나와야 하는 아가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올 땐 '으앙' 하며 큰 소리로 울어댁니다. 그래서 영국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가 나오는 즉시로 땀줄을 끊기 전에 엄마의 심장소리를 듣게 하려고 아가의 심장을 엄마의 심장위에 올려놓습니다. "아가야 염려말아라, 세상밖에 나와도 엄마는 너를 지켜주고 있어 알았지" 하면서 안심을 시켜준 후에 땀줄을 끊고 목욕을 시켜줍니다. 심리적인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지요.

두 번째 엄마로부터 분리는 사춘기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로 소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사춘기의 반항은 엄마도 힘들어 합니다.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서 남자의 성의 특징이 나타나며 여성은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자신도 힘들어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까지 못할 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떠나보낼 수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떠나보내기 위해 고개를 돌린 아버지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제도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고 싶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이 기초될 때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에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사모들 중에는 남편이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과부인 어머니의 정성과 기도로 목사가 된 경우에는 어머니도 아들을 떠나보내기 힘들고 아들 역시 어머니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목회에게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누가 사모인지조차도 구분하기 힘들만큼이나 간섭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로 인해 심장병까지 걸리는 사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열골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열골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6:24-26). "행복 바이러스로 가득찬 행복한 사모들이여!"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겸손한 마음(신9:1-17)찬450장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요구는 겸손한 마음(humble heart)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질까요? 첫째, 과거를 기억케 하셨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목이 굳은 백성임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확인할 때 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악함과(4), 아브라함 언약에 신

실하셨기 때문에(5) 가나안을 주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둘째, 징계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7-8절에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심은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에게 오를 사이에 우상을 만든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온갖 죄악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화 모세의 중보기도(신9:18-29)찬178장

"중보기도"란 용어가 성경적이거나 아니냐를 따지는 수고보다 남의 문제를 책임지고 기도한 모세의 도고를 얼마나 드러내어 심혈을 기울여야 할지다. 모세는 배은망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사랑은 십자가를 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함이다. 교회문제를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

고 가는 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주시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요17:):에도 구구절절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보호, 천당감, 거룩함 등은 대신 책임진 기도였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저희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배웁시다.

수 마음에 새긴 법(신10:1-11)찬376장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두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심계명을 받아 상자에 보관하여 그 규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심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양심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심으로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경을 대할 때

진리임을 알게 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선한 양심으로 대할 때 성경이 열립니다. 둘째, 기록된 말씀을 따라 가게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레위지파의 심검과 축복을 통해 말씀을 전수하심같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새 마음에 새 법을 주심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새 마음을 가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생명의 길입니다.

목 행복하려면(신10:12-22)찬358장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방면에 행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12-13절에 '네 행복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의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신앙을 가지고 도를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째, 마음의 활력을 받아야 합니다. 16절에 나온 육체의 활력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거듭날 때 받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십시오(행2:17-18).

금 언약을 지키자(신11:1-17)찬450장

한편 맺은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적용되는 잣대처럼 생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다음에도 신실한 언약을 지키도록 당부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도록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심으로(14) 모든 생활이 은혜 속에 파묻혀 살게 하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

나님의 뜻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기반이 되며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 의를 따르므로 승리하는 가정이 됩니다.

토 복과 저주(신11:18-32)찬102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가나안에서의 장구한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소유함에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들의 적극적 순종의 태도를 원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가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기준이기에 영적 긴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일연의 실물교육으로 복과 저주의 두 산에서 응답하게 하십니다(19). 이 영적 긴장으로 순종의 열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복음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영적 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영과 육의 싸움이 마음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좇을 때 영생의 맛이지만 육체 소유를 좇으면 사랑의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말씀에 우리의 목을 매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밭은 곳마다 모두 정복할 수 있습니다(24-26).

아직도 스펙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대, 스펙을 넘어 스토리 감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스토리의 강력하고 신비한 매력!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지 영적 원리와 해법을 알 수 있다.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목회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위대한 스토리의 세계!
- 비천한 노예와 강간 미수범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애굽 총리에 오른 요셉의 생애에 은닉된 스토리의 베일이 벗겨진다.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소강석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페어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이롭다온 순종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성소권** 성소권 352면 / 12,000원
-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 십자가를 체험하라**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 503면 / 16,000원

2013년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 안내

‘할렐루야! 주 예수 부활 승리하셨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교협산하 26개 지역에서 지역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3월 31일(주일) 오전 6시

Corona
 장 소: 뉴욕동양제일교회(빈상석 목사) (516) 316-3833
 지역준비위원장: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718)309-6980
 설교자: 윤종훈 목사

뉴욕동양제일교회 뉴욕그리스도의교회
 뉴욕한빛교회 뉴욕평강교회
 뉴욕영락교회 뉴욕푸른초성교회
 뉴욕한길장로교회 뉴욕우리교회

Woodside 1
 장 소: 뉴욕어린이교회(김수태 목사) (646)623-4551
 지역준비위원장: 김기호 목사(뉴욕중앙장로교회) (646)763-4211
 설교자: 방지각 목사

뉴욕어린이교회 큐가든성신교회
 뉴욕베데스다교회 뉴욕양성교회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교회
 정금같은교회 뉴욕영생교회
 퀸즈영광교회

Woodside 2
 장 소: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718)639-3021
 지역준비위원장: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718)639-3021
 설교자: 김석중 목사

뉴욕초대교회 퀸즈산성장교회
 뉴욕나사렛교회 뉴욕필그림교회
 새문침례교회 뉴욕한성교회
 뉴욕남교회 뉴욕에덴동산장로교회
 주님의포도원교회 뉴욕제일장로교회

Sunnyside
 장 소: 뉴욕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 (917) 559-8877
 지역준비위원장: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917) 559-8877
 설교자: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시광교회
 뉴욕중앙교회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뉴욕장로교회 뉴욕한인중앙교회
 뉴욕빌립보장로교회 예사랑교회

Elmhurst
 장 소: 퀸즈한인교회(이규설 목사) (718)672-1150
 지역준비위원장: 김상태 목사(주님의교회) (646) 642-3533
 설교자: 이규설 목사

뉴욕동부교회 지안교회
 뉴욕성산루터교회 주찬양만국교회
 세계영성교회 뉴욕성신교회
 퀸즈감리교회 퀸즈평화교회
 퀸즈한인교회 뉴욕열매교회

Flushing 1
 장 소: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 (646)335-6269
 지역준비위원장: 송일권 목사(큰은혜교회) (917) 385-5021
 설교자: 양승호 목사

뉴욕만나교회 퀸즈동부교회
 뉴욕복된교회 뉴욕새살교회
 뉴욕순복음연합교회 퀸즈성결교회
 뉴욕새사랑교회 뉴욕에버그린교회
 뉴비전교회 뉴욕주은혜장로교회
 큰은혜교회

Flushing 2
 장 소: 뉴욕충신장로교회(김해택 목사) (732)684-0222
 지역준비위원장: 안순백 목사(뉴욕은유한교회) (646) 233-8770
 설교자: 박춘수 목사

뉴욕분향교회 뉴욕참사랑교회
 뉴욕새순교회 뉴욕등대교회
 뉴욕소망교회 뉴욕서부교회
 뉴욕연합장로교회 뉴욕은유한교회
 뉴욕순복음제일교회 한동감리교회
 뉴욕충신장로교회 뉴욕동서교회
 뉴욕한인장로교회 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침례교회

Flushing 3
 장 소: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 (347) 749-4232
 지역준비위원장: 박맹준 목사(뉴욕신일교회) (347) 782-2171
 설교자: 박경환 목사

미주사랑교회 조은교회
 벨렝성결교회 뉴욕승리교회
 퀸즈순복음교회 뉴욕은혜교회
 새소망장로교회 뉴욕은혜장로교회
 성지교회 뉴욕메시지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오메가선교회
 뉴욕신일교회 후리스팅교회
 러비미션교회

Flushing 4
 장 소: 행복한 교회(이성현 목사) (347) 224-9595
 지역준비위원장: 이지용 목사(뉴욕갯세마네교회) (917) 693-2763
 설교자: 김영철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행복교회
 뉴욕선인교회 빛과소금교회
 주님의교회 기쁨과영광교회
 주님을알리는교회 후리스나사렛교회
 퀸즈장로교회 뉴욕수문양교회
 지구촌교회 순복음중앙교회
 뉴욕한인대학교 벨리츠로림한인교회
 뉴욕오순절성결교회 리빙스톤교회

Flushing 5
 장 소: 한인구세군교회(이상정 사관) (516) 485-3235
 지역준비위원장: 김영환 목사(효성교회) (914) 393-1450
 설교자: 이상정 사관

뉴욕사랑선교회 뉴욕새날교회
 뉴욕계명장로교회 하예성교회
 뉴욕광명장로교회 뉴욕효성교회
 침양교회 올레이시미션교회
 퀸즈침례교회 미래비전교회
 하국교회 가스펠장로교회
 든든한교회 구세군한인교회
 뉴욕갈렐리교회

Flushing 6
 장 소: 프라미스교회(김남수 목사) (718) 321-7800
 지역준비위원장: 김연수 목사(뉴욕주은교회) (917) 770-5080
 설교자: 허연행 목사

뉴욕나눔장로교회 뉴욕에은교회
 뉴욕새하늘교회 뉴욕제자교회
 뉴욕서울장로교회 뉴욕복음선교회
 프라미스교회 뉴욕주은교회
 지구촌선교회 뉴욕비전교회
 뉴욕평안장로교회 뉴욕순복음갈보리교회

Flushing 7
 장 소: 대한교회(김진목사) (516) 984-8888
 지역준비위원장: 박태규 목사(새힘장로교회) (718) 840-8931
 설교자: 김진 목사

뉴욕대한장로교회 후리스팅제일교회
 뉴욕루터교회 퀸즈제일교회
 메시아장로교회 퀸즈중앙감리교회
 영림교회 플러싱한인교회
 큰샘교회 한누리교회
 뉴욕새힘장로교회

College Point
 장 소: 뉴욕수정성결교회(황영송 목사) (917) 541-9961
 지역준비위원장: 임용수 목사(좋은씨앗교회) (917) 617-0170
 설교자: 임재홍 목사

뉴욕수정성결교회 양무리장로교회
 뉴욕선교회 예수사랑장로교회
 뉴욕동원장로교회 새성장교회
 뉴욕아멘교회 뉴욕예말장로교회
 뉴욕주심교회
 좋은씨앗교회

Fresh Meadows
 장 소: 뉴욕천성장로교회(이승원 목사) (646) 808-5118
 지역준비위원장: 허윤준 목사(새생명장로교회) (718) 637-1470
 설교자: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쁜교회 임마누엘선교회
 뉴욕동인교회 주신장로교회
 뉴욕벨렝교회 퀸즈연합장로교회
 뉴욕소명교회 뉴욕천성장로교회
 한길선교회 에벤에셀선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샘물장로교회
 뉴욕소망성결교회 부활의 새벽교회
 뉴욕시온성교회

Bayside 1
 장 소: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 (718)357-3355
 지역준비위원장: 박태성 목사(뉴욕영광장로교회) (917) 885-8007
 설교자: 주영광 목사

뉴욕신광교회 뉴욕한인교회
 뉴욕성화교회 실로암장로교회
 뉴욕영광장로교회 뉴욕우리들의교회
 하은교회 뉴욕방주교회
 뉴욕침교회 뉴욕순복음중앙교회
 누가교회

Bayside 2
 장 소: 선한목자교회(황영진 목사) (917) 349-5631
 지역준비위원장: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917) 345-4700
 설교자: 지인식 목사

큰빛교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성수장로교회 뉴욕새천년교회
 에버그린장로교회 주사랑장로교회
 뉴욕강성장로교회 뉴욕할렐루야교회
 퀸즈중앙장로교회 뉴욕그리스도교회
 새가나안교회 선한목자교회
 뉴욕성원장로교회 뉴욕시온산성교회
 사랑의동산교회 뉴욕생명장로교회
 뉴욕제일감리교회 뉴욕사랑의교회

Little Neck
 장 소: 뉴욕중부교회(김재열 목사) (718)279-2757
 지역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뉴욕한국인그레잇교회) (917) 326-1723
 설교자: 양민석 목사

은혜교회 뉴욕만민제자교회
 뉴욕은총장로교회 뉴욕불기동장로
 뉴욕중부교회 뉴욕열린교회
 뉴욕한국인그레잇교회 뉴욕안디옥침례교회
 뉴욕하나장로교회 뉴욕화광감리교회
 그리스도영교회 뉴욕주나목교회
 예수생명교회 예수증인교회
 생명생교회

웨체스터
 장 소: 웨체스터 한빛교회(김종권 목사) (914)815-2285
 지역준비위원장: 노성모 목사(웨체스터장로교회) (347) 326-5530
 설교자: 노성모 목사

웨체스터중앙교회 뉴욕능력감리교회
 양무리장로교회 백민교회
 한인동산장로교회 웨체스터장로교회
 은혜와사랑교회 웨체스터반석교회
 뉴욕새예루살렘교회 호산나선교회
 웨체스터연합교회 세광교회
 웨체스터제일교회 웨체스터 한빛교회
 뉴욕한인제일교회 은혜교회

Staten Island
 장 소: 스테이트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목사) (718)984-3333
 지역준비위원장: 김해근 목사(은누리영광교회) (718) 494-5764
 설교자: 김성권 목사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은누리영광교회
 뉴욕민백성교회 한마음장로교회
 뉴욕성결교회 스테이트아일랜드한인교회
 스테이트아일랜드총은교회 스테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Manhattan
 장 소: 메트로폴리탄연합감리교회(한영숙 목사) (212) 758-1040
 150 East 62 St, NY NY10065(3rd & Lexington Ave 사이)
 지역준비위원장: 윤숙현 목사(뉴욕예수교회) (914) 403-3110
 설교자: 김의승 목사

메트로폴리탄한인교회 뉴욕정원교회
 그루터기장로교회 뉴욕한인교회
 뉴욕예수교회 맨하탄한인교회
 스명장로교회

Brooklyn
 장 소: 브루클린제일교회(박상훈 목사) (917) 406-6931
 지역준비위원장: 우수환 목사(뉴욕평안교회) (917) 293-5454
 설교자: 최병철 목사

뉴욕평안교회 뉴욕남산교회
 브루클린연합감리교회 뉴욕포도원장로교회
 참좋은교회 브루클린영생장로교회
 브루클린제일교회 연합세대교회
 뉴욕한인연합교회

Bronx
 장 소: 뉴욕베델교회(김영식 목사) (516) 660-0044
 지역준비위원장: 김용배 목사(베드포드파크장로교회) (917) 548-2072
 설교자: 김용배 목사

뉴욕베델교회 베드포드파크장로교회
 뉴욕소망장로교회

L.I. 1
 장 소: 참사랑교회(은희곤 목사) (516) 512-4424
 지역준비위원장: 임병남 목사(뉴욕평화교회) (718) 962-5131
 설교자: 은희곤 목사

뉴욕산정현교회 시민교회
 뉴욕알곡교회 뉴욕중앙산정현교회
 새안락교회 뉴하이드파크한인교회
 영원한교회 뉴욕소명교회
 뉴욕평화교회 뉴욕성문감리교회
 참사랑교회

L.I. 2
 장 소: 뉴욕예말장로교회(김중훈 목사) (347) 251-0009
 지역준비위원장: 김태근 목사(뉴욕성령성결교회) (718) 663-1224
 설교자: 김석형 목사

뉴욕예말장로교회 뉴욕물뚝산교회
 뉴욕감리교회 뉴욕성령성결교회
 뉴욕반석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뉴욕순신장로교회 뉴욕말씀장로교회
 뉴욕주의빛교회 뉴욕참빛교회
 화신교회

L.I. 3
 장 소: 뉴욕로블린한인교회(김사무엘 목사) (516) 317-3166
 지역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한마음침례교회) (917) 922-0500
 설교자: 이광희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한마음침례교회
 뉴욕로블린한인교회(뉴욕영성감리교회) 뉴욕풍성한교회
 뉴욕새교회 블레싱교회
 할렐루야뉴욕교회 뉴욕능력성결교회
 주비전교회

L.I. 4
 장 소: 뉴욕성서교회(김종일 목사) (513) 226-3579
 지역준비위원장: 장재웅 목사(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860) 794-1671
 설교자: 임영건 목사

뉴욕성서교회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한나선교회 좋은이웃교회
 열린교회 아름다운교회

부활절 평가회
 ■ 일시: 2013년 4월 3일(수) 오전 11시
 ■ 장소: 금강산
 ■ 준비위원장 준비물: 현금, 참석인원, 후보 한 장

지역별 족구대회(목사님)
 ■ 일시: 6월 3일(월) 오전 9시
 ■ 장소: Alley Pond Park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Web Site: www.nyckcg.org E-mail: nyckcg@gmail.com

회장 김중훈 목사 서기 장경혜 목사
 총무 현영갑 목사 준비위원장 이성현 목사